

ISSN 2733-564X

부부가족상담연구

1권 1호 (2020년 5월)

KACFCS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uples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

부부가족상담연구

제1권 1호 (2020년 5월)

목 차

□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홍정화 · 이영순	1
□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단일상담 사례연구 한은정 · 황경애	17
□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의 내면아이상담 사례연구 이진경 · 황경애	33
□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해온 40대 부부의 IMAGO부부상담 사례연구 권형진	49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홍 정 화* 이 영 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 친밀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J지역에 거주하며 노인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12쌍(24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6쌍(12명)을 배정하였다.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11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가한 참여자들에게 부부친밀감 척도, 자아통합감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및 9주 후 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에 부부친밀감 및 자아통합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집단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실험집단에서 나타난 부부친밀감 및 자아통합감의 증가는 추적까지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노년기, 부부관계증진프로그램, 자아통합감, 부부친밀감

* 본 연구는 홍정화(2017)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el : 063-270-2928, E-mail : leeys@bnu.ac.kr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쇠퇴를 경험함과 동시에 은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역할상실,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지위변화,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연장된 노후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건강이 요구된다(김은주, 2012). 무엇보다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한데,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쇠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이고(고재욱, 2010), 그러한 점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즉 노년기의 건강한 부부들은 인생을 조용히 관조하면서 생의 마음을 준비하는 동료로 혹은 상호연민과 의존 관계로 지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협력과 조율이 중요하다(이선미, 2003).

노년기 삶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혼인·이혼 통계'자료를 보면,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졸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혼율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통적 의미의 결혼 가족 개념이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국민일보, 2017). 노년기의 부부문제에 표면화되는 이유를 보면, 은퇴 후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이후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즉, 부부간 상호작용이 많아져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친밀하게 될 수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과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임선영, 김태현, 2002). 또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가부장적 가족 관계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노년기 부부들은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심창교, 2007), 부부갈등시 참거나 회피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변화순, 1997). 이러한 불평등이나 회피해 왔던 문제들이 자녀들의 독립한 후 나타나는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나 우울감 등의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며, 결혼생활에서 쌓여왔던 갈등이 노년에 표출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노년기 가족의 건강성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박연옥, 2012).

한편,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이경희, 1995). 이는 부부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Sternberg(1986)는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제시하면서 친밀감을 가깝고도 편안한 느낌, 서로를 잘 이해함, 함께 공유함, 원활한 의사소통, 긍정적인 지지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ternberg & Grajek, 1984). 부부친밀감은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경희, 1995), 인지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에 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정서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의미하며, 성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부가 친밀감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서로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해 가고 인생의 여러 측면을 공유하며, 삶에서 활력과 만족을 얻는다. 또한 부부친밀감이 높은 부부들은 서로 보살핌을 주고 받고, 배우자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높아(이행옥, 2002), 갈등이 줄어들고,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러한 부부 친밀감 향상을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사소통 태도가 요구된다. 흔히 친밀한 관계를 방해요소로 의사소통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데 선행되어야 한다.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배우자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의 폭을 넓어져 부부의 친밀감이 더욱 향상된다. 부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해 서로의 감

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반면 이와 같은 친밀감의 결여는 부부의 이혼사유로 가장 빈번히 거론된다(Moss & Schwebel, 1993). 우리나라 노년기 부부들은 1960년대 경제 발전에 치중하면서 부부의 친밀감을 소홀히 하였고,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변화와 세대 차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은 노년기 부부에게 새로운 긴장감과 갈등을 일으켰다(임선영, 김태현, 2002). 또한 일 중심의 가정의 역할에서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부적응적인 가부장적 가정이 평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억압하고 살아왔던 여성노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위협하고, 노년기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노년기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친밀감을 돕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노년기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부부 각 개인의 심리적 건강이 중요하다. 노년기의 심리적인 건강의 중요한 지표로 자아통합을 들 수 있다. Erikson(1997)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수용하며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이 자아통합이라고 하였다. 이는 노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과 변화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는 것이다(Erikson, 1982). 노인들이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죽음, 늙음, 고독과 같은 실존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기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권석만, 2012).

특히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노년기에 경험하는 절망감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Erikson, 1997). 이러한 과정은 정상적인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인지적 과정이며(Butler & Lewis, 1977),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면 통합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만, 삶이 무의미하고 후회하게 되면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자아통합이 잘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삶에 대한 지혜가 높다(최순호, 2015). 자아통합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지지 받을 때 높아지며(전정아, 2006), 부부 관계에서 부부결속력이 좋았을 때도 자아통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이안나, 2011), 높아진 자아통합은 부부 관계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자아통합은 죽음수용과도 관련이 있다.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아통합감을 성취한 노인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 방황하고 절망을 겪는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Hamachek, 1990). 노인들에게 죽음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삶을 더욱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며(김미용, 2014), 삶의 연장선에서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여 현재의 삶이 소중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는 자아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친밀감과 자아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노년기 부부친밀감이 유의하게 향상 될 것이다.

연구가설 2.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노년기 자아통합감이 유의하게 향상 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L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을 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부부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 6쌍(12명)을 실험집단에 배치하고 부부 중 한분이라도 불참의 의사표현을 하신 참가자들은 통제집단에 6쌍(12명)을 배치하였다.

도 구

부부친밀감척도(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노년기 부부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희(199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5점 Likert 방식에 따라 채점하였다. 이경희의 연구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91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척도(ego integrity Scale)

자아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에릭슨(Erikson)의 이론에 근거하여 김정순(198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4문항, 지혜로운 삶 2문항, 생에 대한 태도 2문항, 죽음에 대한 수용 3문항, 노령에 대한 수용 2문항,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3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김정순(1988)의 연구

에서는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본 연구의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신과 배우자의 과거, 현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수용하도록 하여 자아통합을 돕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도입1회기와 중기 2~10회기, 종결11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기는 부부 친밀감과 자아통합을 위해 배우자의 긍정적 관심, 호감존중, 의사소통, 성 중요성 등의 영역과 노년의 과업인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지아가, 2013)과 웰다잉 프로그램(2014. 정운경)을 중심으로 부부관계 증진에 관련된 프로그램 선행연구(김경수, 2013; 심창교, 2007; 오소정, 2016; 차경선, 2014)를 분석하여 노년기 특징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것이다(표 1).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재구성 준거에 따라 심리학 전공 지도교수와 심리학 박사과정 현장 전문가 2명의 지도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표 2). 재구성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 주제 탐색 및 선정, 연구대상 선정 및 집단을 구성하고,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측정도구를 선정하였다. 설계단계에서 목표설정, 활동안 및 활동지 재구성, 회기별 주제 및 세부 활동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문가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설계한 후 실험집단에서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평가단계에서 전체 프로그램 소감문과 사후검사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1.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재구성 내용

회기	목 표	프로그램 내용	참고·수정한 프로그램	수정·보완한 내용
1	-프로그램 목적과 활동 내용을 이해한다. -집단원간 관계를 형성 한다.	-프로그램 안내 -사전검사 -그림으로 배우자소개 -부부팀명 정하기 -규칙 안내 -다정한 부부모습 찍기	마음열기 (김경수, 2013)	부부간 프로그램 목표를 적고 붙여 놓기 추가하여 수정, 보완
2	-부부가 서로의 내면세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배우자의 상처를 알고 위로 하며 서로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배우자 서로에게 단계별 질문지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알아가고 자유와 격려, 지지를 한다. -배우자에게 관심두기 -배우자의 상처치유 -배우자의 꿈 나누기	사랑의 지도 (지아가, 2013)	연령에 맞는 건강 박수 위명업 게임 추가와 사랑의 지도 쉬운 단어로 수정, 보완
3	-부부가 서로 그동안 삶의 노고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한다. -사소한 작은 일상에 관심 갖고 표현하기	-배우자의 장점 발표 -아내->남편에게(세족식) 남편->아내에게(장미꽃으로) 내조감사 표현	호감존중 (지아가, 2013)	시각촉진게임과 세족식 및, 꽃다발증정식 추가 수정, 보완
4	-배우자의 입장에서 잘 들어준 후 반영하고, 인정하고, 공감 할 때 연결감을 갖으며 실천 연습하기	-반영하기 실천연습 -인정하기 실천연습 -공감하기 실천연습	이마고 부부대화법 (오소영, 2016)	인지촉진 게임 후 원하는 거 들어주기 위명업 추가 수정, 보완
5	-독 대신 해독제로 관계의 긍정적 표현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타협을 위한 관계기술을 안다. -자아탄력을 위한 자기진정 기술을 익힌다.	-독 대신 해독제로 소통 -타협의 관계기술 -자기 진정기술 연습 -부드럽게 시작하기 -상대의 영향력 받아들이기 -화해 시도하기	갈등관리(1) (지아가, 2013)	노래와 율동의 위명업 추가 수정, 보완
6	-다가가는 대화를 이해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정서 통장 늘려가기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원수되는 대화	심리적 대화거리 (차경선, 2014)	
7	-나의 삶에서 중요하며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써보고 경험하게 한다.	-버킷리스트 동영상 -버킷리스트 작성 -회상기법 학창시절로 교복입고 한옥마음로 데이트	나의 버킷리스트 (정운경, 2015)	회상기법 학창시절로 경험하기 추가 수정, 보완

8	-부부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과 굴곡을 되새기며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한다.	-자랑하고 싶은 일, -후회스러운 일 (서로 격려, 지지하기) -감사와 사랑, 용서와 화해 편지쓰기	삶의 회고와 의미 (정운경, 2015)	음악과 율동 위밍업 및 용서와 화해 편지쓰기 추가수정, 보완
9	-탄생에서 죽음까지 자연스런 과정의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자신의 장례식을 기획해보고 사전의료의향서와 이별편지나 유언장을 작성해 본다.	-동영상 시청하기 -사전 장례식 기획하기 -사전의료의향서작성하기 -이별편지 혹은 유언장 작성 후 배우자와 나누기	평화로운 죽음준비 (정운경, 2015)	위밍업체조 추가 및 이별편지 추가 수정, 보완
10	문화생활 (영화관람: 죽여주는 여자)			
11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삶에서 만족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한다.	-소감 나누기 -사후검사 -다과회	마무리 (정운경, 2015)	건강박수로 위밍업과 추억사진(교복입는 모습) 전달식 추가 수정, 보완

표 2.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차시별 제목, 목표 및 활동내용

회기	제목	목 표	활동 내용	시간
1	‘너, 나’ 우리는 부부예요	-프로그램 목적과 활동내용 이해하기 -집단원간 관계를 형성 한다.	-프로그램 안내 -사전검사 -그림으로 배우자소개 -부부팀명 정하기 -규칙안내 -부부별 프로그램 목표를 적고 붙이기 -부부사진 찍기	120분
2	‘내 안에 너 있다.’	-부부가 서로의 내면세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배우자의 상처를 알고 위로하며 서로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배우자 서로에게 단계별 질문지로 서로가 질문하고 답한다. -배우자에게 관심두기 -배우자의 상처치유 -배우자의 꿈 나누기	120분
3	‘당신에게 모두 드리리	-부부가 서로 그동안 삶의 노고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표현한다. -사소한 작은 일상에 관심을 갖고 표현한다.	-배우자 장점 나누기 -아내->남편에게(세족식) -남편->아내에게(장미꽃으로) 내조에 감사 표현	120분
4	연결감 갖기	-배우자의 입장에서 잘 들어 주고 인정하고 공감할 때 연결감을 갖으며 실천 연습하기 -다가가는 대화를 통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낮춘다.	-반영하기 실천연습 -인정하기 실천연습 -공감하기 실천연습 -다가가는 대화	120분

5	사랑과 전쟁	-독 대신 해독제로 관계의 긍정적 표현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타협을 위한 관계기술을 안다. -자아탄력을 위한 자기진정 기술을 익힌다.	-독 대신 해독제로 소통 -타협의 관계기술 -자기진정기술 연습 -부드럽게 시작하기 -상대의 영향력 받아들이기 -화해 시도하기	120분
6	성은 아름다워	-노인의 성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해한다. -노인의 성 아름다운 것임을 안다.	-노인의 성 동영상 -활동지 스킨십하면 좋은 곳과 싫은 곳 스티커로 표현하고 나누기	120분
7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	-나의 삶에서 중요하며 해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무엇인지 써보고 경험하게 한다.	-버킷리스트 동영상 -버킷리스트 작성하기-회상기법: 학창시절로 교복입고 한옥 마을로 데이트	120분
8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부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과 굴곡을 되새기며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한다.	-자랑하고 싶은 일 (서로 격려, 지지하기) -감사와 사랑, 용서와 화해 편지 쓰기	120분
9	존엄한 죽음	-탄생에서 죽음까지 자연스런 과정의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자신의 장례식을 기획하고 사전의료의향서와 이별편지나 유언장을 작성해본다.	-동영상 시청 -사전 장례의향서, -사전 의료의향서, -이별편지 혹은 유언장 작성	120분
10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관람(죽여주는 여자)	-영화관에서 영화관람 -소감 나누기	180분
11	행복한 우리 부부를 위해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 하고 현재 삶에서 만족하며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한다.	-활동한 내용 제작 동영상 보기 -소감 나누기 -사후검사 -다과회	120분

연구 절차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 부부 12쌍(24명)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6쌍(12명)씩 배정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척도, 자아통합감 척도를 설문하였다. 프로그램은 11주에 걸쳐 1일 2시간씩 총 11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주 후에 추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트만

부부치료 전문가과정 및 컨설팅 과정 수료하였고, 이마고 부부치료와 웰다잉 전문가 과정을 마쳤다. 보조진행자는 전주시 소재 J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 성상담 전문가로, 매회기 참석하여 녹음 및 촬영 등 전반적인 진행을 도와주었다.

자료 분석

사전 검사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집단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노년기 부부관계 증

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적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서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가 갖는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이 회기별로 작성한 경험보고서와 추수면담 내용을 내용 분석을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인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부부친밀감, 자아통합감에 대한 사전·사후·추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친밀감, 자아통합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평균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처치 전 두 집단 간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은 서로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집단 (n=12)		통제집단 (n=12)		t	p
	M	SD	M	SD		
부부 친밀감	45.50	6.68	45.58	7.89	.03	.978
자아 통합감	55.00	6.21	53.50	8.93	-.48	.638

부부친밀감의 변화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부부친밀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실험집단은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에서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으며($t = -7.325$, $p < .001$), 추적 점수에서도 사후점수가 유지되었다($t = -7.580$, $p < .001$).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와 추적 점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집단 간 부부친밀감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실험집단		t	통제집단		t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부부친밀감	45.50 (6.681)	51.83 (6.991)	-7.325***	45.58 (7.891)	46.83 (6.206)	-.867

*** $p < .001$

표 5. 집단 간 부부친밀감에 대한 사전-추적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실험집단		<i>t</i>	통제집단		<i>t</i>
	사전	추적		사전	추적	
	M(SD)	M(SD)		M(SD)	M(SD)	
부부친밀감	45.50 (6.681)	50.33 (6.485)	-7.580***	45.58 (7.891)	46.42 (7.192)	-.493

*** $p < .001$

표 6. 집단 간 자아통합감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실험집단		<i>t</i>	통제집단		<i>t</i>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자아통합감	55.00 (6.208)	59.93 (6.887)	-5.163***	53.50 (8.929)	52.50 (6.908)	.775

*** $p < .001$

표 7. 집단 간 자아통합감에 대한 사전-추적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실험집단		<i>t</i>	통제집단		<i>t</i>
	사전	추적		사전	추적	
	M(SD)	M(SD)		M(SD)	M(SD)	
자아통합감	55.00 (6.208)	58.00 (6.836)	-3.518**	53.50 (8.929)	51.92 (7.242)	1.086

** $p < .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부부친밀감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자아통합감의 변화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아통합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적 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실험집단은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에서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으며($t = -5.163$, $p < .001$), 추적 점수에서도 사후 점수가 유지되었다($t = -3.518$, $p < .01$). 그러나 통제집단에서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와 추적 점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사 시기에 따른 자아통합감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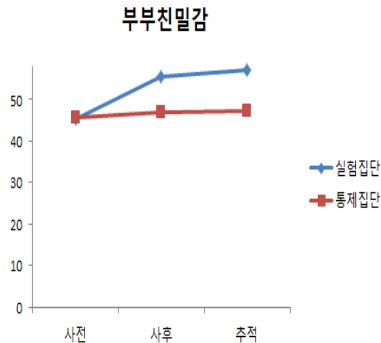


그림 1. 부부친밀감
사전-사후-추적 검사 점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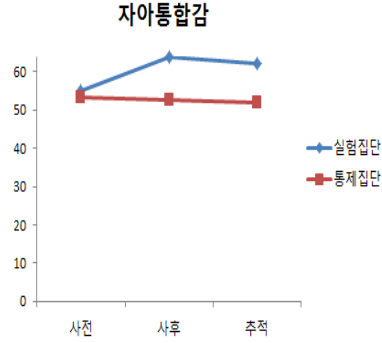


그림 2. 자아통합감
사전-사후-추적 검사 점수의 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 경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단원들이 작성한 회기별 소감과 녹취를 바탕으로 종속변인별 참가자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표 8에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첫 회기 시작할 때만 해도 참여 동기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 혹은 주변인의 권유로 참여한 사람이 많았다. 프로그램 전에 부부친밀감에서 부부가 서로 안맞다고 불평을 하거나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였으며, 각방을 쓴다고 하는 등의 친밀감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과정이나 후에 배우자의 귀함을 알게 되고, 존중감과 다정감, 행복감을 경험하였으며 성문제나 스킨쉽에 대해서도 편안해 하였다. 의사소통을 배우면서 배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의 꿈을 수용하는 등 친밀감에서 변화를 보였다.

자아통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전에는 참여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였으며, 삶에 대한 억울함과 후회, 용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으나 프로그램 이후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용서에 대한 마음도 변화하였다.

표 8. 종속변인별 참가자의 변화 내용

변인	변화 내용	
	초기	후기
친밀감	-그냥 그냥 살면 되지~ 무슨 다 들어서 안 오려고 했다함. -배우자의 내면세계, 꿈 등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고 있었다고 표현함.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다 표현함. -얼마 만에 우리 둘이 대화 하는 것인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 함. -아내가 우울해서 소개로 왔는데 사이가 좋아	-후회감이 들고 배우자의 귀함을 알게 된 거 같다 함. -존중받은 느낌이 들고 다정감이 들어 행복하다고 표현함. -내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니 감회가 새롭고 편안해졌다고 표현함. -스킨쉽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적극적으로 실천해보겠다 함. -꿈을 인정하고 반대하지 않겠다함.

	지면 좋겠다고 함. -각자 방을 쓰고 있다고 함. -남편이 내 손을 안 잡아준 지가 몇 년 전인지 셀 수도 없다고 표현 함.	-배우자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자주 표현 해야겠다고 함. -부드럽게 말하고 빨리 화해 시도하도록 해야겠다고 함. -손이라도 잡고 잘 자라고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함. -각방 쓰는 걸 다시 생각해 본다함.
자아 통합감	-무슨 죽음? 죽음이라고 하니 두렵다 함. -용서, 화해는 대상자가 있는데 혼자서 불가능 할 거 같다고 함. -후회감이 많이 든다고 함. -이렇게 산 세월이 억울하다함.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두렵지 않지만 후회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고 함. -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지 싶다며 이 시간이 감사하다고 함. -삶과 죽음은 같다고 함. -용서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거 같다 함. -남은 생은 서로 지지 하겠다 함.

논 의

본 연구는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결과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부부친밀감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전·사후의 점수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주 후 추수 검사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부부관계 성숙프로그램이 부부의 친밀감을 증진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심창교, 2007)는 연구와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친밀감에 유의하게 향상된다(이선미, 2003; 김경수, 2013)는 연구 내용과도 일치하며, 부부친밀감이 건강한 부부관계의 필수적 요소로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이영희, 이윤주, 2011)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부부친밀감의 변화를 가져온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노인부부들이 전 회기 참여하면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부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서 변화경험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2회기 배우자의 내면세계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높이고, 몰랐던 상처를 알면서 위로를 보내고, 프로그램 전에는 반대했던 배우자의 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인정을 하였으며, 상대방을 독립된 존재를 여기게 되었다. 또한 1회기에서 함께 팀명을 정하고, 사진을 찍는 활동과 3회기의 세족식을 통해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는 느낌을 경험하였으며, 4회기와 5회기의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건강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갈등 관리를 위한 타협의 기술을 익히면서 부정적 정서를 조율할 수 있게 됨으로서 부부의 친밀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집단원들은 성(性)에 대해 함께 나누는 것이 쑥스러워하며 처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진지하게 임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졌고, 배우자와 손잡기 및 포옹하기 등의 적극적 스킨십 활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반갑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들은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들이 그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적극적 표현을 통해 긍정정서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의사소통과

함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스킨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서 자아통합감 점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통합감은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사전·사후의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주 후 추수 검사에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었다. 노년기 부부성숙 프로그램이 자아통합에 변화를 보인다는 연구(심창교,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 웰다잉 프로그램이 자아통합감에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연구(문남숙, 2009; 정의정, 2012; 정운경, 2015)와 일치한다. Erikson은 생애 발달이론을 통해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발달과제가 통합이며, 생애발달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노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아통합감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회기 버킷리스트 활동과 8~9회기의 죽음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식하며 남은 가족을 위해 의료적 의사결정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자아통합에서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남은 생을 서로 지지하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고, 용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자신을 더 통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효과성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들의 경우 주로 결혼초기의 부부, 중년부부가 대상이었거나(이은하, 정용구, 2014; 지아가, 2013), 결혼만족도 프로그램(고재욱, 2011; 김경수, 2013; 심창교, 2008)이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요인 연구(문남숙, 2009)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인부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또한 기존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죽음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죽음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을 통합하였다. 이런 통합적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처음으로 심리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하는 등 의미있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노인상담이나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는 한계로 노년기 부부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처치효과에 대한 내적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노년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노년기 부부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들의 구체적인 요구들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재욱 (2012). 노년기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6(4), 119-143.
- 국민일보 (2017). 10년 후엔 결혼보다 동거... 우려되는 가족해체. 2017. 1. 25.
- 권석만 (2012).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경수 (2013).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프로그램이 부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용 (2014). **웰다잉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습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2).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김정순 (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남숙 (2009). **노인의 죽음준비 및 용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연옥 (2011). **노년기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화순 (1997).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217-253.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심창교 (2007). **노년기 부부성숙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선미 (2003). 노년기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효과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02-132.
- 이안나 (2011). **노인의 결혼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이윤주 (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문화, 부부친밀감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 이은하, 정용구 (2014). 부부관계 성장요인 개발 및 부부프로그램의 활용. **에너지그림심리역동연구**, 1(1), 159-178.
- 이행옥 (2002). **노년기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정서적 상호작용, 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선영, 김태현 (2002). 노년기 부부 스트레스와 결혼 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정의정 (2012).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분석**. 벤처창업연구, 7(2), 189-194.
- 전정아 (2006). **노인의 자아통합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운경 (2015). **웰다잉 프로그램과 노인의 삶의 질, 죽음불안과 자아통합감의 관계연구**.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아가 (2013). **Gottman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부모기전이 부부의 친밀감,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경선 (2014). **이혼위기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순호 (2015). 자기성장 프로그램 참여가 노년기 여성의 자아통합감과 가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지**, 24(1), 1-24.

통계청 (2019). **2019년 고령자통계**. 통계청.

Butler, R. N., & Lewis, M. I. (1977). *Aging and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social Approaches*. St. Louis: Mosby. Caine, E. D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Erikson, E. H. (1997).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Hamachek, D. (1990). Evaluating Self Concept and Ego Status in Erikson's Last Three Psychosocial Stag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6), 677-683.

Moss, B. F., & Schwebel, A. I. (1993). Defining intimacy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2, 31-37.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Sternberg, R. J., & Grajek, S. (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12-329.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4월 13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05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05월 22일

The effect of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on the marital intimacy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Hong, Jeang-Hwa Lee, Young-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of Senescence on marital intimacy and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12 pairs of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volunteers aged over 65, who live in Jeonju and use the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6 pairs of whom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s were assigned to controlled group. The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of Senescence was conducted through 11 sessions.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examined utilizing by the marital intimacy scale and the ego-integrity scale at pretest, posttest, and 9-week follow-up.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re as follows : subjects in experimental group who had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ed meaningful increase in the sense of marital intimacy and ego-integrity whereas those in controlled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The increase in the sense of marital intimacy and ego-integrity maintained through the experiment until the last follow-up.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discussed.

Keyword : Old-Age, Marital Relationship, Ego-Integration, Marital Intimacy, Ego-Integrity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단일상담 사례연구

한 은 정* 황 경 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감정조절이 어려운 30대 후반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돕기 위해 실시한 단일상담 사례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남편과 별거 후, 자신의 감정조절 관련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 상담을 통해 감정조절과 한부모 역할의 방법을 알기 원하였고 상담자는 참여자가 감정조절 문제를 갖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감정조절 및 표현의 중요성 자각과 의사소통 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여성 한부모 역할의 수행을 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합의하여 1회기-5회기는 Satir상담도구로, 6회기-10회기는 Susan Boyan 과 Ann Marie Termini의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기법] 부모용 지침서(2009)의 부모교육 내용을 도구로 적용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의 진행 결과 참여자는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와 비일치적 의사소통(생존)방식을 탐색하고, 점차 감정조절 및 감정표현의 중요성을 자각, 실천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 한부모 역할을 원하는 30대 주부에게 제공된 개인 상담이 참여자의 감각, 정서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기 자각과 수용, 자기조절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부모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변화가 왔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감정조절, 여성 한부모, 부모역할, 단일상담 사례연구

* 공동저자 : 한은정(제1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상담학과 석사

본 연구는 한은정(2020)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경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Tel:055-751-3412, E-mail:kahwang@gntech.ac.kr

사람들은 대부분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심각한 역경의 시간을 겪는다(Ozer, Best, Lipsey, & Weiss, 2003). 그 중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미혼모가 되는 것과 같은 생애 위기적 상황은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 모두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중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의 경우, 사회적 편견은 이전에 비해 훨씬 낮아졌지만 개인에게는 여전히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의 하나이며(Hetherington & Kelly, 2002),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된다(최은실, 2019). 실제 한부모로서 겪는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양육 및 자녀와의 관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욕구, 감정, 생각, 신체감각, 행동 등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자기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정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김경민, 1990). 감정은 개인이 겪는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조절되고(라정숙, 2009), 어떠한 상황에서 불쾌하고 싫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문경숙, 2008).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자기가 자기됨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환경의 제한을 받음으로서 불안, 좌절, 긴장 등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열망 대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하지 못한 생존방식을 발동시키며, 반사적으로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즉,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공격당할 것을 느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역기능적(비일치적) 의사소통 방식(비난형, 회유형, 산만형, 초이성형)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정옥, 2017).

반면 가족 구성원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은 가족

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촉진시켜준다(박성아, 2010).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위로, 개인은 그 속에서 규범과 규칙, 가치관과 성격형성, 의사소통방식, 문화, 다양한 감정, 대인관계방식,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배우게 된다(김문희, 2018). 특히 자녀는 최초의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식을 배우고 익힌다(박태영, 유진희, 2012). 이러한 가족 내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계가 건강한 가족은 전제하지 않으며 서로를 품어 줄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족은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표현 방법과 사건의 해결 과정을 본받아 해결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이 없어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이소미, 2009). 자녀는 부모로부터 살아가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정서적 관계 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므로, 표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 대화할 기회와 타인에게 다가가는 표현방법, 정서적 유대관계를 배우지 못함으로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희, 201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혼이나 별거의 과정을 경험한 한부모 가족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역할의 재조정 문제, 자녀의 심리 및 행동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양세정, 2013). 한부모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김설, 2007) 배우자 부재에 따른 고독감, 애정 결핍,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과 역할 과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그리고 사회관계망의 변화 등 많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낸다(김은영, 2003; 최경숙, 2003; 임선영, 2010). 또한 한부모 가족들은 불합리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물론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혼

이나 별거로 인해 부모 중 한쪽이 떠난 한부모 가정은 일반 가정의 경우보다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는데, 한부모 가정의 부모 혹은 모들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는 주로 자녀양육이다(김인순, 2003). 즉,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자녀에게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 혹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김인순, 2003).

한부모들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 가족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추구이므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과 자신감을 가지며 자녀들에게 충분한 지지와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여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목적은 참여자가 감정조절 문제를 갖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감정조절 및 표현의 중요성 자각과 의사소통 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여성 한부모 역할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 겪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에 있어 한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나 방법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참여자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연구하기에 사례연구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감정조절 문제로 부모역할이 힘든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상담을 경험한 참여자의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참여자를 위한 상담의 효과는 무엇인가?

방 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30대 후반 가정주부로 결혼 기간은 10년이며 아들(9세), 딸(7세)남매를 두고 있고 남편(40대)은 회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참여자는 결혼생활 중 가부장적이고 비난형의 의사소통유형을 가진 남편으로 인해 불안과 화, 짜증, 걱정,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현재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고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감정이입이 되어 불안한 상태로 마음을 털어 놓고 심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이들을 안정감 있게 잘 키우고 싶다고 하는 등 한 부모 역할 수행의 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을 의뢰해 왔다.

2. 연구절차

1) 참여자 정보수집 및 사전 검사 실시

참여자는 연구자의 지인이 추천한 30대 주부로 본인이 상담을 희망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상담초기 사전 검사 실시(Satir 자기만다라, 영향력의 수레바퀴), 3세대 가계도 및 가족규칙을 작성을 통하여 상담의뢰경위, 주 호소문제, 문제의 발현시기, 가족관계 및 참여자의 감정, 갈등관계, 참여자의 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초기면접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참여자와 개인상담 목표 설정 및 협의하였다.

2) 상담과 분석

본 연구는 감정조절이 어려운 30대 후반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위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감정조절 개선을 위해서는 Satir 상담을 적용하고, 바람직한 한부모 역할과 관련된 교육을 위해서는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기법 부모용 지침서](홍경자, 차영희, 최태산, 채유경, 2009)를 통한 상담과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상담기간은 2019년 8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0회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상담내용을 녹음한 축어록과 상담자의 메모를 바탕으로 상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도교수(수련감독)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사례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감정조절이 어려운 30대 후반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한 사례연구로서, 사전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성 및 참여자 비밀 보장 등을 위해 연구 자료에서 참여자들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자료는 본 논문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논문 작성 완료 후에는 폐기됨을 알리고, 연구 도중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진행된 자료는 폐기되며, 연구 또한 철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4) 연구자의 상담관련 경력

본 연구자는 10년 이상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치료사, 원장)으로 재직 중에 보육 및 부모상담을 진행하여 왔다. 2018년부터 본 대학원 석사과정 아동가족상담학과에 진학하여 Satir가족치료, 내면아이치유, 부모교육, 아동발달 등 가족상담 관련 전공과목을 공부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대학원생임에도 그동안의 부모상담 경험과 석사과정에서 배운 Satir상담 및 부모지침서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본 연구의 대상인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의 한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본 연구의 상담자 및 연구자로 임할 수 있었다.

3. 연구도구

1) Satir상담 도구

(1) 빙산탐색

Satir는 인간의 심리내면을 빙산에 비유하였고, 빙산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보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수면 아래의 보이지 않는 더 큰 덩어리는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기대, 열망, 그리고 자기부분들로 인간의 말과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Satir의 빙산은 감정조절 문제로 참여자가 표현하지 못한 내면적 상처나 부정적 경험에 대해 감정, 기대, 바람, 욕구를 솔직하게 표출하도록 돕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지나친 타인 중심의 배려나 회피하는 감정조절 문제 상황 대응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가계도

가계도를 통해 내담자에 관한 많은 정보를 한눈에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증상이 원가족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내담자가 가족 간의 관계를 인식하여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직시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참여자의 원가족 가계도는 지각상의 과거와 사실상의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을 포함한다. 참여자의 자기 내면을 탐색하며 과거의 영향이 현재의 삶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지각상의 과거 시점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였던 어린 시절의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경험과 그 당시 상황을 발견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현재 시점이 그 두 가지 중요한 시점이다(Satir, Banmen, Gerber, Gomori, 1991). 본 연구에서는 가계도를 통하여 참여자의 가족관계, 의사소통유형,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파악하고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로 부모역할이 힘든 배경을 통찰하고 억압된 감정과 과거의 억눌림의 관계성을 발견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이해

하며 여성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자기 만다라

Satir의 자기 만다라(Self Mandala)는 우주의 생명력, 생성과 변화, 질서, 신비한 힘의 총합을 나타낸다. 만다라는 인간의 만물의 근원이며, '나는 (I am)'이라는 것은 만다라형체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Satir는 만다라를 사용하여, 여덟 개의 동심원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보편적인 자원을 나타내며 나와 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여덟 개의 구성요소(신체, 지적활동, 정서, 감각, 상호작용, 영양분, 환경, 영성)의 총합체로 분석되고 이해되며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atir 등, 1991). 본 연구에서는 생활환경, 건강, 상호작용,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선택, 이 모든 것에 대한 참여자의 감정 등 위의 여덟 개의 내적 부분의 기능과 조화상태를 Satir의 자기만다라를 통하여 참여자의 개인상담 결과 분석 시, 사전·사후검사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영향력의 수레바퀴

영향력의 수레바퀴(Wheel of Influence)는 아동기와 청년기 동안 지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모든 인간관계(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특정 사건에 관련된 사람)와 애완동물, 소중한 물건 등이 포함되며(Satir, Banmen, Gerber & Gomori, 1991), 참여자가 자신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경험한 바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중앙에 원을 그려 '나'를 적고 다른 사람들은 마치 가지가 달려 있는 수레바퀴처럼 원주위에 표시하면 된다. 친밀도는 바퀴살의 두께와 바퀴의 크기가 담자와의 거리를 표시한다(황경애, 2015). 본 연구에서 영향력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감정조절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을 나누고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경험에 대한 정서적 표현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 참여자의 상담 초

기와 후기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2) 부모교육 자료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 기법] 부모용 지침서(Boyan, Termini, 2009)는 이혼·별거 과정에서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 배우자와의 만남이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술과 자녀를 잘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두 가정을 꾸려 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방법, 이혼에 따르는 자녀 문제들, 결혼생활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 자신의 고뇌 등 새로운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과 효과적인 활동을 제시한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긍정적 이혼 관계로 나아가는 여덟 단계(1장~8장)가 소개되는데, 본 연구는 제 1장의 내용을 개인상담에 적용·진행하였다.

결 과

1. 감정조절 문제로 부모역할이 힘든 배경

1) 가계도에 나타난 배경

연구자는 참여자의 가계도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 원가족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고 세대 간에 전수된 대처방식 및 갈등관계로 언급했던 친정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남편, 자녀와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파악·수집된 참여자의 가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이는 참여자 개인상담 시 언급된 정보로 참여자가 다루기를 원하지 않은 남편 쪽의 가계도 정보는 제공받지 못하였다. 가계도에 나타난 배경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친정아버지는 참여자가 초등 때부터 투병생활을 하게 되어, 그때부터 가족들과 친밀하지 못했으며, 주로 개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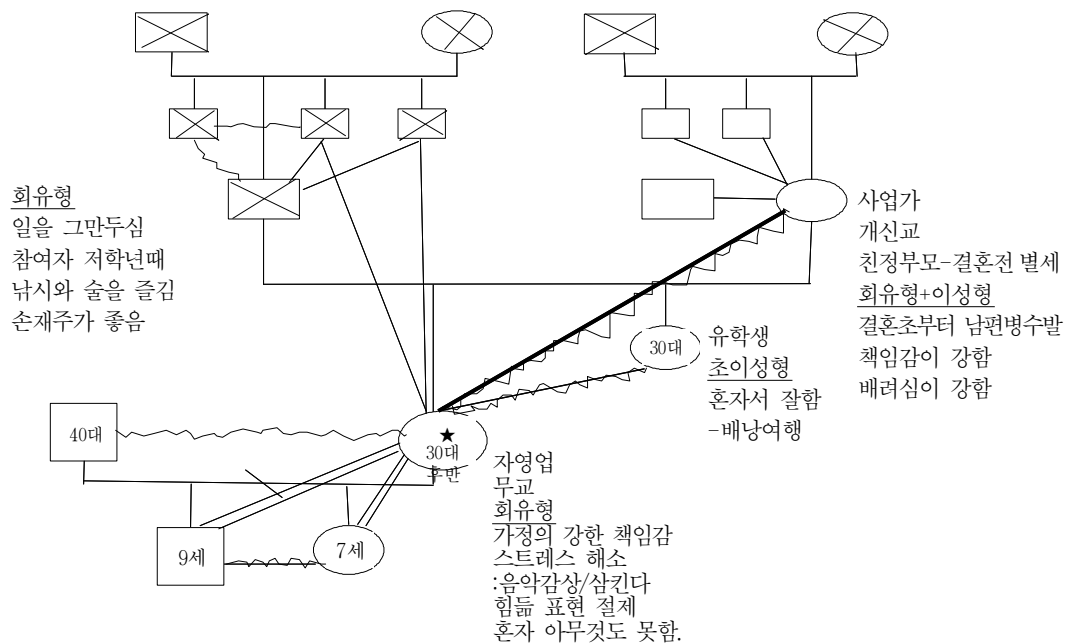


그림 1. 참여자가 표현한 가계도(참여자 보호를 위해 연령 등 수정함)

(손재주를 활용한 만들기 작업 & 낚시)을 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참여자가 느낀 친정어머니의 모습은 아버지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자신 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자의 가설적 진단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아버지의 투병생활로 아버지와 정서적 연결감이 부족했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친정어머니와도 정서적 연결감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즉, 참여자의 친정 가족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친밀하지 않았으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로의 태도는 외부로는 친밀한 듯하나, 내부로는 갈등 관계인 비밀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를 참여자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초등시절 참여자가 경험했던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된 느낌과 비밀치적 경험이 참여

자가 감정조절이 어렵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위의 가계도를 통해 분석된 내용으로 보아, 참여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정서적 보살핌과 사랑의 부재로, 참여자의 자기표현이 억압당하고 비밀치적 의사소통 방식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 가족 및 자신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

회기별 축어록 분석을 통하여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원가족 관련)
원가족 내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원가족 관련)

대상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축어록 번호)	* 긍정 **부정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대응 방식(→ 연구자 분석)
친정 아버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3-92)	**	많이 운다 → 친정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을 우는 것으로 표현
	제가 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1-33)	**	피한다 → 갈등을 직면하지 않고 부정적 감정을 회피
	너무 존경스럽고..잔소리도 많이 하고(2-54)	*	존경스럽다 → 존경스러운 긍정적인 외부감정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정적인 내적감정으로 양가감정을 가짐
친정 어머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2-55)	**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유지
	이런 식의 걱정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2-72)	**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 친정어머니가 믿어주길 원하는 마음
	빛 있는 것도 못 참겠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2-75)	**	부모의 빛을 참지 못함, 자신이 번 돈을 빛으로 갚는 것에 스트레스 받음 → 친정어머니 빛을 20대부터 일을 해서 갚은 참여자(울분) → 모녀의 경제적 역할이 뒤바뀜
	웬만하면 굳이 안 들러도... 언제나 좋아요.(2-82)	*	편안하다, 좋다 → 친정어머니의 방문은 원치 않으나 속으로는 편하다고 하는 참여자
	아픈 걸 되게 잘 하는 편이라서 제 스스로도 해서 그 약을 먹고 있어요.(3-18)	**	아픈 걸 되게 잘 하는 편임 → 표현하지 말라는 친정어머니 말대로 표현하지 않고 독립적인 모습이었다.
	실망스럽다고(4-83)	**	실망스럽다 → 친정어머니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참여자
	동생이랑 약간 사이가 안 좋았던 게...정말 00에서 제일 좋은 학원을 다녔고, 대학도 국립을 안가고 사립을 간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었어요.(2-75)	**	화가 남 →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해 배려가 없는 여동생의 선택에 화가 났고 사이가 안 좋아짐
여동생	부러워요. 놀랬어요.(4-33)	*	부럽다, 놀란다 → 혼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참여자와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동생
	동생은 또박또박 잘하고 너무 신기했어요(4-75)	*	신기하다, 든든하다. →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여동생이 든든함
	마음은 아팠지만 고마웠다고 해야 하나(4-122)	*	마음이 아프고 고마움 → 시택에서의 참여자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표현해줘서 마음이 아프고 고마움
원가족 전체	이렇게 사는거지 뭐. 굳이 말을 해야 되나(7-98)	**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 언어로 표현하지 않음

위의 표 1에 의한 참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안쓰러움을 우는 것으로 표현하며, 갈등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제적 역할은 하지만 심리적 역할은 떨어지고(분리되고) 싶다는 양가감정을 표현하였다. (2)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자녀 관련)

자녀와의 관계에 나타난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여자는 어린 자녀(9살, 7살)를 남편과 동일시 한 것으로 나타나 밉고,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힘들고, 자신을 배려해주지 않는 어린자녀들에게 화가 난다고 표현하였

표 2.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자녀 관련)

대상	감정조절 문제 상황(축어록 번호)	* 긍정 **부정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대응 방식(→ 연구자 분석)
자녀	아이들이 미워 보일 때도 있고(1-30)	**	밋다 → 어린 자녀(9살, 7살)가 남편과 동일시되어 미워 보임
	저만 보고 있는 느낌이 드니깐 부담스럽기도 하고(1-30)	**	부담스럽다 → 준비 없이 한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느낌
	힘들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애들을 피하는 것..(1-30)	**	피한다 → 어린 자녀(9살, 7살)에게 힘든 표현 않으려고 피함
	다른 건 몰라도 밤에는 편안하게 자고 싶기는 해요. 힘드네요.(1-53)	**	힘들다 → 자는 시간만큼은 한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음
	애들이 자꾸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정말 화가 나요.(6-22)	**	화가 난다 → 친정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던 원가족 내에서의 자신과는 다른 어린 자녀(9살, 7살)들에게 화가 남
아들	부산스럽기도 하고 정확하게 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싶어서(4-94)	**	부산스럽다(아들: 산만형 의사소통 유형) → 아들이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같아 걱정스러움
	거의 입을 닫고 있어서(4-94)	**	거의 말이 없음 → 아들에게 챙김과 위로를 받고 싶음
	잘해가지고 제가 시켰지만 제가 민망할 때가(5-73)	**	민망하다 → 아들이 인사를 잘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 반응이 어색함
	큰아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컴퓨터 학원을 보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학원도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6-31)	*	놀랐다 → 집안의 경제적 사정을 먼저 생각하여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과는 다르게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들의 모습에 놀람
	(아침식사에 대한 아들의 요구사항) 마음에 드는건지 안드는건지 모르니깐 답답하기는 했는데 표현을 해줘서 저도 이 것만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깐 편안해요.(6-12)	**	답답하다, 편안하다 → 원가족 내에서 자신을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먼저 자신을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참여자
딸	자기가 찾을 생각도 없고 뭐 약간 이래요..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해야 하니깐 제가 꺼내놓는 편이긴 해요.(7-42)	**	내가 찾을 생각이 없음 → 아동기 부모과업이 아닌 유아기 부모과업에 머물러 있음
	(의사소통유형) 저와 조금 비슷한거는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기도 하고(4-94)	*	비슷하다 → 딸에게서 자신이 친정어머니를 걱정하고 챙겨주었던 모습이 보임
	(주말에 아빠와 지내기 위해 갈 때 혼자 있을 엄마를 걱정해주는 이야기)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4-94)	*	모(母)가 위로를 받음 → 결여된 감정적 보살핌을 받음
	우니깐 더 제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6-33)	**	예민해진단다 → 자신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과 같아서 신경이 더 쓰임

다. 따라서 참여자의 자녀 관련 감정조절 문제와 대응방식은 원가족의 대응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딸에게 참여자가 위로 받는 유형으로, 원가

족에서 있었던 친정어머니와 참여자의 역동이 핵가족 내 모녀간에 재현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참여자 관련)

감정조절 문제 상황(축어록 번호)	* 긍정 **부정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대응 방식(→ 연구자 분석)
남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너무 피폐해지고 생활도 궁핍해져서(1-3)	**	힘들다 → 지금 힘든 모든 상황을 남편의 탓으로 봄
(스트레스 해소 방법) 삼키거나 샤워를 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거나.(1-19)	**	스트레스 억압 → 원가족 내에서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조절 대응방식을 핵가족 내에서도 사용함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나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1-20)	*	편안하다 → 자신의 감정을 타인을 통해 표현하고 싶음
(자기만다라에서 환경부분) 부담감이 있어요.(1-51)	**	부담스럽다 → 20대부터 했던 경제적 역할에 압박감을 느낌
(자기만다라 상담초기 검사 후 기분) 귀찮아하는 느낌도 있고.(1-56)	**	귀찮다 →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욕 상실로 나타남
‘내가 없다면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는 건가’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사실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괴롭기도 많이 괴로웠고(2-2)	**	답답하다, 괴롭다 → 갈등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하거든요.(2-67)	*	밝은 척을 잘 한다 →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함
다른 사람이 자기의 힘들음을 티내는 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2-69)	**	힘들을 티내면 안 됨(참여자: 초이성형 의사소통 유형) → 자신은 물론 타인도 힘들음을 티내는 것을 싫어함
오늘은 그런대로 기분도 괜찮고, 마음을 조금 비웠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마음인데 반반.. 약간 무기력함도 약간 반반.(3-2)	**	무기력하다 →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남
(루마티스 관절염 진단 이후) 힘들거나 슬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3-19)	**	힘들거나 슬퍼하지 않음 → 감정을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음
집을 진짜 너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불편해요.(3-26)	**	불편하다 → 지금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
내가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3-10)	**	→ 원 가족에서 경제적 역할로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고 삶
(여행의 의미)제 숨통을 약간 트여 주는 느낌(3-32)	*	숨통을 트여준다 → 활력 요소로 표현
(남편이 여행일정을 계획하고 여행 갔을 때)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3-39)	*	좋았다 → 그 때는 남편으로부터 챙김을 받아서 좋았다고 함
친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해도 편하고 뭘 해도 편하고 애들도 기분 좋게 잘 지내다가 왔어요.(4-3)	*	→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는 집에서 떠난 것만으로 편안함을 느낌 →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부모 역할의 부담감이 조부모에게로 분산되어 편안함을 느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안 되죠.(4-64)	*	→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음

(3)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참여자)

참여자의 감정조절 문제 상황과 대응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한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관련 감정조절 문제와 대응 방식에서 참여자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을 통해 표현하고 싶어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밝은 척

을 잘하고, 어느 누구도 힘들음을 표현하면 안 되고,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때 좋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으로 비밀치적인 모습을 표현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가 원가족에서 답습한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친정 부모에게 받지 못한 감정적 보살핌 욕구의 존재는 핵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 개인상담을 경험한 참여자의 변화

참여자가 상담 중 나타난 감정 표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의 참여자가 상담에서 참여자 자신의 감정 표현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자는 첫 상담 시작할 때는 억제되었던 자신의 감정을 상황만 표현하였으나, 2회기부터 상담 후반으로 갈수록 감정표현에 있어서 상황보다는 주체가 되어 가벼워진다, 편안하다, 만족스럽다, 가볍다 등의 감정단어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위의 표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감정조절이 어려워 언어적 표현이 서툰 참여자가 Satir 상담(자기 만다라, 영향력의 수레바퀴)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동안 잊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축어록에 나타난 참여자의 감정 표현 변화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힘들고 피폐하다(1-3)→ 주체가 자신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함	나를 돌아보기(1-64)→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됨
힘들다(2-2)→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함	가벼워짐(1-65, 6-2, 8-135)→ 자신의 감정, 상태, 상황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의 소중함을 알게 됨
힘들다(2-13)→ 별거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인데 내 탓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생각함	표출하다(2-70)→ 상담을 받는 이유를 밝힘
무기력하다(3-2)→ 현재의 감정표현을 신체적으로 나타냄	확실했지다(2-84)→ 상담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게 됨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함(3-105)→ 자신의 약점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그걸로 인해 자신의 숨통을 트여주는 여행도 회피함	평온해지다(2-85)→ 감정을 표현하고 현재와 과거의 자신의 되돌아보면서 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됨
집에 혼자 있는 것 괜찮지만 외부 활동은 힘들(3-106)→ 새로운 장소에서는 두려움을 느낌	부부관계에서의 저자세(3-48)→ 부부관계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게 됨
원망스럽다(3-118)→ 남편에 대한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참여자	조리 있게 의사전달하고 싶음(4-76)→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유형에 변화를 주고 싶음
힘들다(4-2)→ 몸은 힘들지만 감정조절 및 감정표현의 중요성을 알기에 상담을 신청함	후련하다(4-130)→ 감정표출 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단어로 표현을 하기 시작함
자신이 없다(4-89)→ 내 자신을 조금 챙겨야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 자신의 약한 의지보다는 나이 든 탓을 함	편안하다(7-3, 9-130)→ 언어적 표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표현하고자 함
	만족스럽다(7-124)→ 부모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한부모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냄

표 5. 참여자의 Satir 자기 만다라 비교 (상담초기, 후기)

구분	영성	신체	지적활동	정서	감각	상호작용	영양분	환경
사전 (변화)	6	4	6	8	8	6	2	2
							↓	↓
사후	6	4	6	8	8	6	4	4

3. 참여자를 위한 상담의 효과

1) 참여자의 Satir 자기 만다라 변화

위의 표 5의 Satir 자기만다라 작업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각 항목별 10점 만점, 자기보고식 - 전체 10회기 상담이나, 자기만다라 작업은 8회기에 실시한 것임)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한부모 역할에 집중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부모에 개선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 1회기와 상담 8회기에서 참여자가 표시한 자기만다라를 비교해 보면 8회기

상담을 마친 참여자가 구성하는 8개 영역의 점수가 1회기에서 측정된 것에 비해 거의 비슷하나, 한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참여자의 한부모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개 영역(영양분, 환경)이 8회기에 각각 2점씩 향상되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2) 참여자 영향력의 수레바퀴 변화

다음의 그림 2는 상담초기(1회기)와 상담후기(9회기) 참여자의 영향력의 수레바퀴 그림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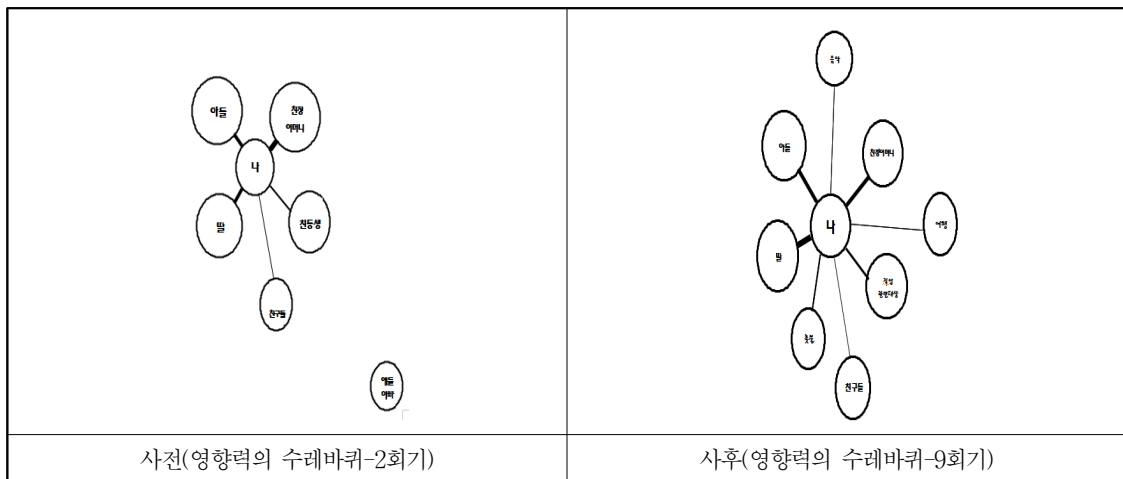


그림 2. 참여자의 영향력의 수레바퀴 비교(자기보고식 - 상담초기, 상담후기)
(전체 10회기 상담이나, 자기만다라 작업은 8회기에 실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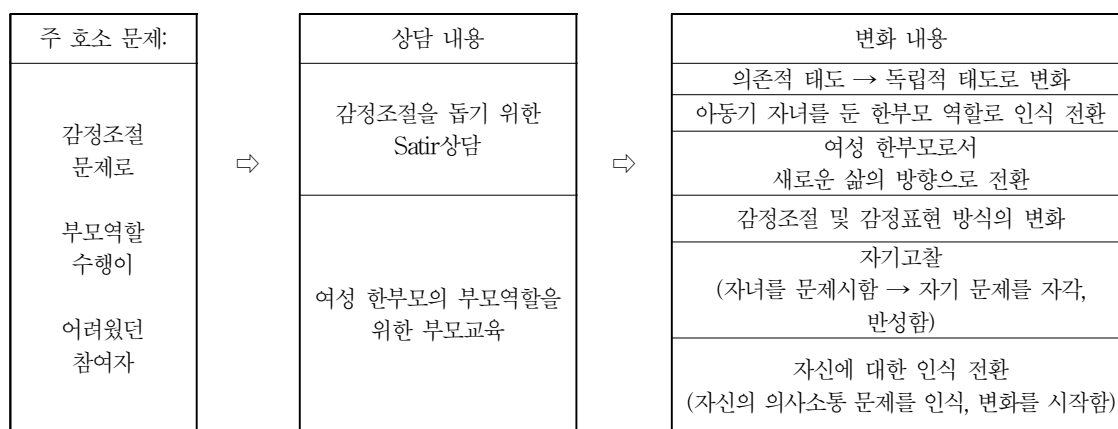


그림 3.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상담의 효과

그림 2에 나타난 상담 2회기 참여자의 Satir 영향력의 수레바퀴를 살펴보면, 참여자는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대상으로 친정어머니, 아들, 딸, 여동생, 친구들, 남편을 작성하였다. 사람이 아닌 사물은 없었으나 9회기에 참여자는 한 번도 갖고 싶고 사고 싶은 물건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체험으로 만든 초에 불을 켜면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2회기에 참여자는 남편을 맨 마지막에 종이의 끝부분에 그리고 검사지 안에서 조차도 선으로 연결하기 싫은 대상이라고 표현하며 연결선을 그리지 않고, 또한 남편을 '애들 아빠'로 표현함으로써 남편과의 거리감을 보여주었으나, 9회기에는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제는 남편이 참여자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감정조절이 어려워 언어적 표현을 힘들어 했던 참여자가 영향력의 수레바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힘들었던 감정을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참여자와 유사하게 아주 힘든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참여자에게 이 도구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3)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상담의 효과

위 그림 3은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상담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Satir상담과 부모교육을 통한 개인상담 접근은 자신의 감정조절 문제로 부모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참여자로 하여금 감각, 정서에 대한 자기 자각과 수용, 자기조절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부모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변화를 나타내는 상담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면서 감정조절과 관련하여 부모역할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참여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참여자를 위해 실시한 상담개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가 감정조절 문제로 부모역할이 힘들었던 배경은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원가족에서

배운 참여자의 소통방식, 자기 욕구보다는 경제 사정의 우선시, 자녀에게 위로 받고자한 부모의 경험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모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지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한상현, 2004), 참여자의 감정억압에 영향을 준 배경은 원가족의 부정적 관계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원가족의 관계, 원가족 내 참여자의 역할,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주요인으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함으로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을 경험한 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atir상담의 초·중기에 참여자는 자신의 상황만 얘기하였으나 2회기부터는 감정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상담 중·말기에 참여자는 가벼워진다, 편안하다, 만족스럽다, 가볍다 등 감정단어로 표현하는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담 이론을 참여자의 연령, 성별, 주 호소문제 등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문소영, 2017), 참여자가 오래 억압해온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감정억압을 해소하고 일치형으로 가는 의사소통의 변화, 자존감의 회복, 자신감, 긍정성의 회복, 자기이해를 통해 참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인관계에서 편안함을 가지는 등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 연구(김문희, 2018)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참여자의 상담(Satir상담과 부모교육) 효과를 살펴보면, Satir상담을 통하여 참여자는 독립적인 태도로의 변화, 아동기 부모역할로의 인식전환, 여성 한부모로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부모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는 한부모로서의 감정조절 및 감정표현 방식의 변화, 자기고찰, 자신에 대한 인식전환의 변화 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참여자를 위한 상담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으며, 아이에 대한 미안함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아이와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뒤틀리는 경향도 있으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정빈, 2013).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감정조절이 어려운 여성 한부모가 경험한 역할의 어려움에 관한 단일상담 사례연구로 상담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의 접근을 통해 더 많은 상담이 제공된다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접근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원인(이혼, 사별, 미혼모와 미혼부 등) 및 대상자(연령층, 성별, 직업 등)의 여성 한부모들을 위한 더욱 확대된 사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가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인은 주로 원가족 내 감정조절 문제상황과 대처방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났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긍정적 한부모 역할을 위한 도움이 유지, 강화되도록 원가족 내 서로 엉켜있는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가족상담 기법의 적용이 확대된다면 이들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모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였으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이거나 이와 같은 교육에 거부감을 갖는 대상자에게는 그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담과 적절히 접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는 대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데, 이같은 한부모 여성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가족적 관점에

서 포용하여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이같은 한부모 여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족상담 전문가와 가족상담기관이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민 (1990). 자기표현 훈련이 불안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11, 1-12
- 김문희 (2018). **감정억압이 심한 30대 남성의 의사소통개선을 위한 상담사례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설 (2007).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3).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순 (2003). **한부모(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정숙 (2009).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공격성이 높은 중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숙 (2008). **감정조절 및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87-187.
- 문소영 (2017). **부모의 거부적 양육으로 인한 비일치적 의사소통을 가진 아동의 통합적 상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아 (201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양육태도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 유진희 (2012). **분노조절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19-133.
- 양세정 (201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미 (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빈 (2013). **한부모 여성의 부모역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499-532.
- 이정옥 (2017). **아동의 부정적 가족관계 경험을 통해 본 상담 사례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2010).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주 (2005). **감정자각 및 표현 훈련집단과 유사 집단의 감정자각 점수의 차이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8(2), 81-95.
- 통계청 (2018). **2018년 인구총조사**. <http://kostat.go.k>
- 최경숙 (2003). **사회적지지가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19). **회복탄력성이 높은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현 (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정서지능 및 인터넷 중독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경애 (2015). **Satir 변형체계적 치료의 이론과 실제**.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Boyan, Susan, Blyth., & Termini, Ann Marie. (2009). **이혼·별거 가정의 부모역할-자녀를 갈등으로부터 보호하기**[*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shielding your child from conflict*].

- (홍경자 · 차영희 · 최태산 · 채유경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3년 출판).
- Hetherington, E. M., & Kelly, John. (2003). *For Better or for Worse: Divorce Reconsidered*. New York: Norton.
- Ozer, EJ. Best, SR. Lipsey, TL, Weiss, DS.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1), 52
- Satir, V., Banmen, J., Gerber, J. & Gomori, M. (1991).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CA: Science & Books.
-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4월 02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05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05월 22일

A Single Counseling Case Study on the Parenting Roles of a Single Mother with Difficulties with Emotional Control

Han, Eun-Jeong Hwang, Kyung-Ai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presents a single counseling case study on a single mother in her late thirties that had a difficult time with emotional control to help her with parenting roles. The participant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controlling her emotions after separation from her husband and sought personal counseling to find ways to control her emotions and play her roles as a single parent. The counselor figured out the background for the participant's problems with emotional control and tried to help her restore her emotional stability and fulfill her roles as a healthy single mother by encouraging her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emotional control and expression and change her communication. After getting consent from the participant, the researcher used the Satir counseling tool in Sessions 1~5 and the content of parent education in Susan Boyan & Ann Marie Termini's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2003) in Sessions 6~10. As the counseling went on,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participant looked into her wounds inflicted by her family of origin and the incongruent communication(survival) methods and gradually realized and practiced the importance of emotional control and expression. In conclusion, personal counseling provided to a homemaker in her thirties that wanted to play her roles as a single mother helped her with her sensory and emotional expression abilities and had positive effects on her self-awareness, self-acceptance, and self-regulation process, thus bringing positive changes to her performance of parenting roles as a single parent.

Keywords : Emotional Control, Single Mother, Parenting Role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의 내면아이상담 사례연구

이진경* 황경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으로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아이를 탐색하고 수용함으로써 부적응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정서·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진행한 연구이다.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접목시킨 '내면아이상담'을 총 21회기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 부적응적 성격특성, 자기 거부적 모습으로 자기 비난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슬픔을 가진 아이, 극단적 행동으로 내면을 보호하려는 아이, 자기 내·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아이 등 역할이 뚜렷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내면아이들이 관찰되었다. 참여자는 본 연구의 '내면아이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아이들과 안전한 접촉을 하고 미해결된 핵심감정의 수용, 증상에 대한 통제력 회복, 자기표현,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면아이상담'이 부모의 폭력으로 고통 받는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내면아이, 내면가족체계, 자기 비난, 부모의 폭력

* 공동저자 : 이진경(제1저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경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52725)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Tel : 055-751-3412, E-mail : kahwang@gntech.ac.kr

여성가족부(2016)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간의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으로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중 자녀 즉,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로 개념화하며, 가족 내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체적·언어적·정서적 폭력을 직접 당하는 학대경험이 대표적이다. 2016년에 진행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의 27.6%가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에 따르면 만 9~17세의 응답자 57.4%가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조사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녀에 대한 부모폭력의 현황을 보여준다.

다수의 연구들은 부모의 폭력이 성장하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 변화(Prasad, Kramer, & Ewing-Cobbs, 2005), 심각한 인지적·신경학적 손상(Barlow, Thompson, Johnson, & Minns, 2005), 분노·적대감·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조절의 어려움(Browne & Finkelhor, 1986), 또래 괴롭힘 행동(박진아, 2016) 등의 부적응 문제를 보일 수 있다. 이외에도 낮은 언어능력과 지능 수준(Hildyard & Wolfe, 2002), 언어와 학습능력과 관련한 낮은 실행기능으로 인해 학습과정의 과제수행과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De Bellis, Hooper, Spratt, & Woolley, 2009). 특히, 부모의 폭력 경험은 바람직한 자아개념을 형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는 자녀가 자신을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게 하고 여러 적응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장원, 김희진, 2011). 또한, 대학생 시기는 가치관, 부모관계, 이성 관계 등 새롭게 제기되는 정체성을 탐색하고 적응해야 하는 성

인진입기로 불안정을 경험한다(Arnett, 2000). 나아가 폭력에 있어 여성이 보다 취약하다는 점(Van de Velde, Bracke, & Levecque, 2010), 아동기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성격장애가 초기 성인기에 굳어진다는 점(조성호, 2000)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부모의 폭력으로 자기비난을 경험하는 여자 대학생 자녀의 심리·정서·행동 문제의 극복을 돕기 위한 전문적 개입이 상당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통해 접근하였다. 먼저 ‘내면아이치료’는 개인이 과거에 끝내지 못했던 작업, 특히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슬픔’ 등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달단계적 치료를 통해 내면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가치체계의 핵심요소를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심리치료이다(오제은, 2009).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발달과정을 되돌아보고 각 발달단계에 따른 미충족 욕구와 미해결 과제가 아직 치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치료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내면에 그대로 품은 ‘내면아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폭력을 겪은 자녀들은 정서인식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고, 자신의 욕구와 내적갈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성장하므로 적절한 정서자각과 표현이 발달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Goldsmith & Freyd,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내면아이치료’는 부모의 폭력으로 정서와 욕구를 인식 및 표현하기 어려운 청소년 혹은 대학생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면아이치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면아이치료는 부부관계(박진수, 최광현, 2020; 박영현, 박승민, 2015), 50대 주부의 대인관계(황경애, 2020), 청소년의 가족 내 트라우마(최광현, 2014) 등의 문제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안전한 환경

에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현재의 호소 문제를 개선하는 질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백승아와 구본용(2019)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기의 부적응 도식에 영향을 주고 이는 내면아이를 통해 부적절한 분노를 표현하게 하는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부적응 문제에 어린 내면아이의 상처가 연결고리로 작용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내면가족체계이론’을 창시한 Schwartz(1995/2010)는 개인의 내면을 체계적 관점으로 이해하였는데, 그는 이와 같은 내면체계가 다양한 ‘부분’들 또는 하위 성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내면가족체계 접근에서는 개인 내면에 있는 하위 성격들은 무엇이고, 하나의 체계로서 어떻게 기능하며, 그러한 체계가 다른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세계 구조를 파악할 때 감정과 욕구는 우리의 ‘부분’들(때로는 ‘소 인격체’ 혹은 ‘하위 인격체’라 불림)로부터 온다고 한다. ‘내면가족체계이론’의 용어인 ‘부분’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사람들과 같이 각각이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 동기 및 세계관을 갖고 있다. 즉, 치료자는 개인의 내면을 구성하는 하위성격들 또는 ‘부분’들이 행하는 파괴적인 태도를 병리적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다 내면체계의 전체 맥락 속에서 다른 ‘부분’들과 관계하고 존재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한 내면가족체계치료 관련 최근 선행연구들로는 내면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감정관리 코칭에 대한 연구(권수영, 성기정, 2017), 장애자녀 부모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경감이 내면체계를 변화시키고 자기수용과 대인관계의 긍정성 등 외부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이혜옥, 연문희, 2015), 검사를 통해 선별된 주 관심 군 청소년에게 내면가족체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내면가족체계 구조의 변화, 자아정체

감의 향상, 정서·행동 문제의 감소효과를 보고(신예순, 2020)한 연구들이 실시되었고 개인 내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심리·정서·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이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면아이치료 및 내면가족체계치료 관련 선행연구와 그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내면아이치료 및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접목한 ‘내면아이상담’ 접근을 통해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고 부정적 자기 인식과 자기 비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폭력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행연구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미술치료, 음악치료, 통합예술치료, 가족치료, 이야기치료, 사이코드라마 연구 등의 접근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주로 예술치료 및 타 치료 기법을 기반으로 실시된 양적 연구로, 부모의 폭력으로 고통 받는 자녀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내면아이상담’을 도구로 부모의 폭력으로 자기 비난을 호소하는 여대생 참여자가 환경 및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기 비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인 상담의 진행 과정을 탐색 및 보고하는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으로 성인기까지 고통 받는 내담자들을 접하는 임상현장의 임상가들이 상담 전략을 개발,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참여자가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자기 비난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내면아이상담’으로 파악된 참여자의 내면아이의 유형과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내면아이상담(내면아이치료 및 내면가족체계치료)'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상담의뢰 배경

연구 참여자는 20대 초반(여성)으로 현재 대학 재학 중이며, 아버지(비정규직)와 어머니(자영업)의 둘째로 오빠(2살 위), 여동생(1살 차이), 남동생(1살 차이)이 있다. 참여자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척 하면서도 무력감과 공허감을 항상 느낀다고 하였다. 참여자의 부모는 오랜 기간 부부 갈등을 겪어왔으며, 가족들은 아버지의 심각한 폭력과 폭언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참여자는 부모의 폭력, 가족갈등으로 인해 부적응적 정서, 행동 문제, 반복적 자살사고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른 분노,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문제와 공격성, 자살 사고로 심한 자기 비난 문제를 호소하였다. 참여자 오빠의 도움으로 상담이 의뢰된 참여자는 면접상담 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사례연구 대상 선정배경

참여자가 미해결된 감정을 표현하고 슬픔을 스스로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접목한 '내면아이상담'이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자기 비난의 고통을 호소하는 참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내면아이상담'은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접목을 시도한 기법으로 21회기의 장기적인 개인 상담을 연구 자료화한 것이다. 이는 양적 연구로는 어려운 참여자의 깊은 내면 변화를 사례연구로 보고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기간과 윤리적 고려 및 슈퍼비전

본 연구를 위한 개인상담은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 녹취와 비밀보장 등에 대한 설명 후 참여 동의서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1회기가 진행되었다. 주 1회(2시간)의 상담진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의 학교 및 개인일정 등에 따라 상담회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였다. 연구자가 회기별 상담내용과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연구 자료의 수집은 비구조화 면담을 원칙으로 상담기록을 위한 녹음, 메모 노트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상학적 자료 분석을 위해 현상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Colaizzi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녹음을 전사하고 메모, 참여자의 내면아이작업 사진 등을 검토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를 주제별로 묶어 범주화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현상을 확인 및 기술하였다.

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 즉, 상담내용에 대한 지나친 구체화로 비밀보장이 위배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축어록 및 메모 노트를 작성 및 분석하였다. 사례 연구의 엄격성과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위해 2인의 슈퍼바이저(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A와 B의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연구 전 과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청소년상담사 2급(여성가족부), 가족상담사 2급(사)한국가족상담협회} 자격증 소지자로, 00대 학교 학생상담센터의 객원상담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내면아이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슈퍼바이저 A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어떻게 접목시켜 상

담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소집단 슈퍼비전을 상담 초반 1회기에서 10회기까지 총 10회기 진행하였다. 슈퍼바이저 B의 슈퍼비전은 연구의 초기, 중기, 말기에 총 6회기 실시하였으며, 초기에는 참여자를 위해 적용한 ‘내면아이상담’의 선행연구 탐색, 중기에는 ‘내면아이상담’의 전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 말기에는 본 연구가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과정을 검토하였다.

개인상담 도구

내면아이치료

본 연구에서 개인상담 과정에서 사용된 기법들은 다음과 같은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에 기반을 두고 실시되었다. Bradshaw(1990/2004)에 의하면, 내면아이란 한 개인의 정신 속에서 독립된 인격체처럼 존재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다. 기억 속에 저장된 어린 시절의 모습이며 주관적 경험을 통한 정서적 기억을 가진 존재이다. 내면아이는 ‘경이로운 내면아이’와 ‘상처받은 내면아이’라는 두 개념으로 나누어진다. ‘경이로운 아이’는 천진난만함, 자발성과 창조성을 지니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 나선다. 반면에,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이기적이고 유치하며, 정서적 혹은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역기능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발달단계에 따른 욕구들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아이로서 당연히 경험하고 받았어야 할 신뢰와 안전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슴 속에 품은 채 겉모습만 성장한 성인이 되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응을 위한 거짓자아를 받아들여 아이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즉,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품고 자란 성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는 상호의존성, 미해결된 슬픔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공격성, 무조

건적 사랑을 원하는 자기에,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이나 불신, 친밀감 장애, 중독적 성향, 공허감, 우울 등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심리·정서·행동적 특징을 보인다.

Missildine(1963/2006)은 내면아이를 치료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를 직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 안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을 붙들고 있는 내면아이를 만나,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해소되지 못한 공포,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대면하고 입 밖으로 꺼내어 놓는다.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참여자는 아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묻고 들려준다. 즉, 참여자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스스로 함으로써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담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아이를 발견하고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과거에 실시되어온 개입방법과 다른 새롭고 중요한 심리상담 방법이다(박영현 외, 2015).

내면가족체계치료

Schwartz(1995/2010)는 마음의 다양성과 체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내면가족체계이론을 창안하였다. 인간의 내면에 다양한 마음 즉, 여러 개의 감정, 생각, 이미지들이 존재하여 가족과 같은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다양한 마음들을 ‘부분’이라고 명명하는데, ‘부분’들은 가족구성원처럼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인간의 내면에서 가족과 같은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부분’들은 추방자, 관리자, 소방관이라는 세 가지의 그룹체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추방자는 학대, 배신, 외로움과 같은 고통의 경험으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상처 받은 핵심 ‘부분’이다. 둘째, 소방관은 중독, 자해,

폭력, 충동, 분노 등 역기능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추방자의 슬픔이나 수치심을 진화하는 부분이다. 셋째, 관리자는 위협, 고통 등의 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의식에 자주 등장한다. 판단, 통제, 염려, 무감각 등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내·외부를 통제하는 부분이다. 추방자와 접촉하기 위해 추방자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소방관의 무분별한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관리자의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추방자의 고통에 극단적으로 반응하여 내면체계를 돌보려는 소방관 역시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분'들이 내면가족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관계구조를 이해하고 추방자에게 접근할 때 내면가족체계의 '부분'들이 안전함 속에 추방자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에 내면가족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기'와 '부분'들의 세 가지 유형인 추방자, 관리자, 소방관의 관계구조를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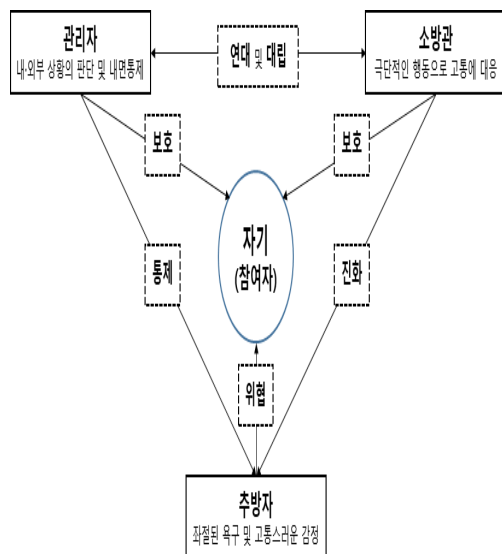


그림 1. 내면가족체계의 도식화 (권수영, 2017)

내면가족체계치료의 핵심 요소는 '자기'이다. '자기'는 개인의 개별적 '부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부

분'들을 어떠한 평가나 판단 없이 관찰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챙김적 상태이다. 또한 메타인지를 통해 여러 '부분'들의 목소리, 감정, 욕구들의 불균형을 알아차리고, 각 '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도하면서 전체 내면가족을 조화롭고 회복력을 가진 체계로 성장시킨다(Moore, 2013). 즉, 개인은 '부분'의 목소리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자기'의 상태로 위로와 격려, 수용의 언어를 스스로에게 돌려준다. 이러한 '자기'와 '부분'들의 신뢰와 공감적 관계는 '부분'들의 힘겨루기와 역할을 내려놓게 하여 '자기'를 강화하고, '부분'들에 대한 연민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기'의 지도력은 내면가족체계는 균형과 안정을 돕게 될 것이다.

내면아이상담의 목표와 내용

연구자는 상담 초기(1-8회기)에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담관계 형성과 '자기사랑노트'를 활용하여 내면아이를 탐색하고 상처를 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탐색된 내면아이에 대한 애도를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저항이 7회기에 나타나, 슈퍼바이저 A에게 슈퍼비전을 요청하고 내면아이들의 역할과 관계구조를 탐색하는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적용하게 되었다. 탐색된 내면아이의 체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상담 중기(9-13회기)에 참여자의 내·외부를 경계하는 새로운 내면아이가 나타났다. 연구자와 참여자는 내면가족체계를 통제하고 외부세계를 경계하는 내면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으로 상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상담 말기(14-21회기)의 참여자는 경계하는 내면아이의 역할 내려놓기로 내면의 소리를 더욱 깊게 탐색하고 경청할 수 있었으며, 자기수용, 가족관계, 증상에 대한 통제력 회복 등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관찰되었다. 상담회기별 '내면아이상담'의 구체적 상담목표와 내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회기별 '내면아이상담'의 목표와 내용 및 적용이론

단계	상담 목표와 이론	회기	상담 내용 및 기법
초기	라포 형성 및 내면아이 탐색·애도	1	* 주 호소 문제 탐색 및 라포 형성
		2	* 주 호소 관련 사건 감정 탐색
		3	* [자기사랑노트] 작업 1 : 내면아이 '빨강', '검정', '파랑', '노랑', '초록' 출현
		4	* [자기사랑노트] 작업 2 : 어린 시절 탐색 ⇨ '빨강'의 욕구
	내면아이치료 (Bradshaw, J.) 자기사랑노트 (오제은)	5	* [자기사랑노트] 작업 3 : 가족 내 역할 찾기 ⇨ '빨강', '파랑' 위로
		6	* [자기사랑노트] 작업 4 : '파랑' 위로 / 빗속의 사람 그리기 : 스트레스 탐색
		7	* [자기사랑노트] 작업 5 : 자기이미지 탐색 / 내면아이 거부 ⇨ 저항 출현
		8	* 생활사건 탐색 및 가계도 작업
중기	내면아이 역할 및 관계구조 파악	9	* 내면가족체계 탐색 및 '부분'의 이야기 경청 : 새로운 내면아이 '회색' 출현
		10	* 내면가족체계 탐색 및 '부분'의 이야기 경청 : '회색'과 라포형성 / 새로운 내면아이 '하늘' 출현
		11	* 내면가족체계 탐색 및 '부분'의 이야기 경청 : '하늘'과 라포 형성
	내면가족체계이론 (Schwartz, C.)	12	* 내면가족체계 탐색 및 '부분'의 이야기 경청 : '파랑' 활성화 ⇨ '회색'과 '하늘' 긴장 / '회색'과 '하늘' 조력 ⇨ '파랑' 접촉
		13	* 내면가족체계 탐색 및 '부분'의 이야기 경청 : '하늘' 활성화 ⇨ '파랑' 억제 / '회색'의 역할 내려놓기
말기	내면아이 애도 및 자기이미지 회복	14	* [자기사랑노트] 작업 6 : 내면아이에게 글쓰기(1) *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 감소 관찰
		15	* [자기사랑노트] 작업 7 : 내면아이에게 글쓰기(2) * 가족 상호작용 변화 관찰 / 새로운 내면아이 '갈색' 출현
		16	* [자기사랑노트] 작업 8 : 내면아이가 원하는 말과 욕구 들어주기(1) * 내면체계가족 '부분'들의 이야기 경청
	내면아이치료 (Bradshaw, J.) 자기사랑노트 (오제은)	17	* [자기사랑노트] 작업 9 : 내면아이가 원하는 말과 욕구 들어주기(2) * 회복에의 실천적 의지 관찰 ⇨ 아르바이트, 집단상담
		18	* 내면체계가족 '부분'의 이야기 경청 * 자신에 대한 연민이 관찰됨
	내면가족체계이론 (Schwartz, C.)	19	* [자기사랑노트] 작업 10 : 내면아이의 심상작업 * 내면체계가족 '부분'의 이야기 경청
		20	* 내면체계가족 '부분'의 이야기 경청 * '파랑', '검정', '노랑', '빨강'을 훈육하는 모습 관찰
		21	* 자발적 내면아이 애도 나누기 * 종결 작업

주. 색으로 표현된 참여자의 내면아이들: 빨강(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사랑 갈구), 검정(공격성, 분노), 파랑(자해 욕구), 회색(경계·통제), 하늘(무기력), 노랑(타인에게 잘 보이려 노력), 초록(친진난만 어린이), 갈색(무엇이든 시도해 보려 노력하는)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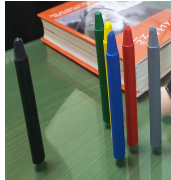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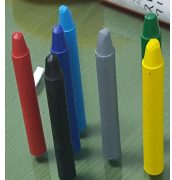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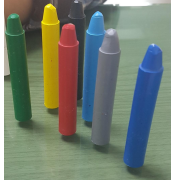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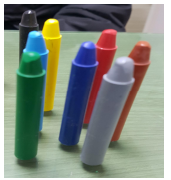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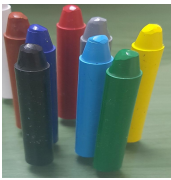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진행된 ‘내면아이상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참여자는 가족 특히,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격렬한 고통의 감정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늘 쫓기는 듯한 압박감과 불안감, 죽음을 떠올릴 만큼의 공포와 절망감으로 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충동적·공격적 표현, 학교생활 부적응, 감정과 생각에 대한 표현의 어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양가감정, 알코올 문제 등의 부적응적인 성격특성이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참여자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 철회가 두려워 눈치 보는 아이, 고통 속의 자신을 내버려두는 자학하는 아이,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무가치한 아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

표 2. 자기 비난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 배경

구분	분석	회기	참여자의 표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정	불안감 소외감 공포 및 절망	1회기 7회기	맞는 꿈을 꾸요. 늘 쫓기고, 초조함. 이 순간만 버티면 끝이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중략)...살인자가 쫓아와요, 다쳤는데 도망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생의 무의미함	5회기 8회기	우울하고 자해하고 싶고,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고, 점점 내려놓는 느낌이에요. 더 살아서 뭐하나. 매일이 무의미해요.
부적응적인 성격특성	충동성 공격성	2회기	화가 올라오면 한 순간에 터져서 멈출 수가 없고, 뭘 던지거나 벽을 치거나 해요. 실망감, 화가 나면 부수고 때려야 감정이 해소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 부적응	2회기	학교 다닐 때 탈선했어요. 후배들 군기잡고 친구들한테 쉽게 화내고 그랬어요. 고3 때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생각과 감정 표현 불능	3회기 4회기	감정, 생각에 솔직하지 않아요. 아닌 척. 맞고 울면 또 맞아서 소리 없이 울어요(중략)... 상대는 화내고 난리쳐도 화내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참아요. 버려지는 거 보다 숨기는 게 나아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	9회기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죠. 어느 정도까지만. 너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친구들을 생각해요. 그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요.
	알코올 문제	16회기	술을 엄청 좋아해요. 먹으면 끝을 보죠. 원래 저녁에만 먹었는데, 요즘에는 쉬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부정적인 자아상	눈치 보는 아이	5회기	자괴감, 열등감이 들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빛들이 사라지는 느낌. 가치를 평가하고 떠날까봐. 관심이 없어질까 봐 눈치를 보고 위축되고.
	자학하는 아이	6회기	(빛속의 사람 그림)신발도, 우산도 없고, 자신을 내버려두네요. 저랑 많이 닮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방치해두는 거 같아요.
	무가치한 아이	9회기	저는 늘 불쌍했어요.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가치도 없고 불쌍해서 더 싫어.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게 초라해요.
	뒤집어쓰는 아이	14회기	집에 무슨 일이 터지면 나 때문이래요. 내가 싫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나만 참으면 돼요.
내면아이 수용 거부	내면적 행동 (받았던 학대를 자신에게 표출)	4회기 5회기	버려지기 싫어서 우는거 짜질해. (내면아이를) 위로하기 싫어. 거부감 생겨요. 괜찮으면 또 버려질거라 괜찮지 않아야 해요 ...(중략)...삶, 자체가 슬퍼요. (내면아이의 슬픔을)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요. 끝 보기 싫어요.

표 3. 참여자 내면아이 관계의 시각화

					
9회기	10회기	12회기	15회기	16회기	20회기
회색 전면 내면 접근 경계	노랑·초록 전면 긍정 정서 활성화	파랑 전면 자해 욕구 활성화	하늘 전면 파랑 통제 목적	회색 전면 파랑 통제 목적	검정의 전진 공격성 활성화

주. 색으로 표현된 참여자의 내면아이들: 빨강(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사랑 갈구), 검정(공격성, 분노), 파랑(자해 욕구), 회색(경계·통제), 하늘(무기력), 노랑(타인에게 잘 보이려 노력), 초록(천진난만 어린이), 갈색(무엇이든 시도해보려 노력하는)

표4. 내면아이의 유형과 특징

유형	이름	특징	회기	참여자 진술
추방자	빨강	공허감 ↓ 사랑을 갈망 버려짐의 공포	11회기	빨강은 늘 사랑 받으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노력하고 기다리고. 이렇다고 내가 사랑받을까 비참하대요. 빨강처럼 저도 느끼는 거 같아요.
			16회기	빨강은 텅 빈 느낌. 이 기분을 가장 많이 느껴요. 사랑받을 수 없을 거 같아 외롭고. 버려질까 두렵고. 사랑에 매달리지만 믿지도 않아요.
소방관	검정	분노 공격성	17회기	검정은 아빠를 죽이고 싶대요. 상상도 해보고...(중략)...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때리고 싶고, 치고 싶고.
			19회기	검정은 이미 짜증이 나있어서 더욱 분노하고. 가족 때문에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쩔 수 없다고. 때리고 부수고 그래야지 화가 풀린대요.
	파랑	깊은 슬픔 ↓ 우울 자해 욕구	12회기	파랑이 어제 사건(아버지 폭력)으로 튀어 나왔어요. 파랑이 앞으로 뚫고 나오니까 남을 해치기보다 나를 해치고 싶어요.
			15회기	파랑은 처지고 차분해요. 제가 우울하거나 자해하는 게 맞대요. 애만 나오면 뒤를 보게 돼요. 옛날에 맞았던 거, 안 좋은 사람을 만났던 거.
			19회기	파랑은 내가 우울해야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삶이 힘들었고 저 스스로도 불행한 사람인 거 같고. 그러니까 파랑은 내가 우울한 게 맞대요.
관리자	회색	내면 묻지기 ↓ 경계와 긴장	9회기	회색은 불신감이 커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적절하게 처내고...(중략)...(나한테) 위로, 칭찬하기 싫어해요. 아무한테도 안 된대요.
			10회기	회색은 파랑과 이야기 하지 말래요. 안정화 된 대형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허락할 수 없대요. 누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회색이 막고 있어요.
			11회기	파랑이 난리치면 자기도 어쩔 수 없대요. 강해지고 싶대요.
	하늘	무기력 ↓ 하지 않음으로 내면 보호	13회기	하늘은 검정, 파랑이 안 튀어 나오게 버텨요. 남을 해치거나 난리치는 걸 막아요. 자기가 애쓰지 않으면 더 엉망이 되니까 강해지고 싶대요.
			19회기	하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에 대한 보상이래요. 내가 쉬길 바래요. 안하려고 땡깡을 피우죠. 자해, 분노, 아이 같은 행동들을 막고 있어요.

주. 색으로 표현된 참여자의 내면아이들: 빨강(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사랑 갈구), 검정(공격성, 분노), 파랑(자해 욕구), 회색(경계·통제), 하늘(무기력), 노랑(타인에게 잘 보이려 노력), 초록(천진난만 어린이), 갈색(무엇이든 시도해보려 노력하는)

는 뒤집어쓰는 아이로 내면화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면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자신을 위로 및 수용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참여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행동문제 및 자기 인식 특히, 자기 거부적 태도는 참여자의 자기 비난을 더욱 강화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참여자가 부모의 폭력으로 자기 비난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 배경의 구체적 내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상담 중기에 탐색된 참여자의 내면아이를 가족세우기로 구조를 파악하였다. 참여자 보호를 위해 크레파스를 활용하여 각 내면아이들을 색으로 명명하고 물리적 거리, 색을 통한 심상 등을 시각화하였다. 상황과 맥락에 따른 내면아이의 힘과 체계적 구조를 참여자가 직접 시각화한 예의 일부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내면아이 유형과 구조를 시각화된 내면체계의 구조와 참여자 진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빨강’으로 명명된 아이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으로 공허감을 느낀다. 사랑에 매달리지만 자신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어 내면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다. 다음으로, 격렬한 분노를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검정’과 깊은 슬픔과 우울을 자해 욕구로 표현하는 ‘파랑’이 발견되었다. ‘빨강’의 핵심감정 의식화를 공격성과 자해 욕구로 방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면세계에 대한 접근을 경계하는 ‘회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참여자와 내면체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늘’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외부의 내면세계 접근을 결정하고 파괴적인 ‘검정’과 ‘파랑’ 그리고 핵심감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빨강’을 통제하고 있었다. 내면가족체계이론에 따라 ‘빨강’은 버림받음, 무가치, 두려움, 공허감 등의 극단적인 감정들로 거부당하고 비난받는 추방자, ‘검정’과 ‘파랑’은 충족되지 못한 욕

구의 진정을 위해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소방관, ‘회색’과 ‘하늘’은 내·외부 상황, 소방관과 추방자의 위협적 행동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통제해 내면세계를 안정시키는 ‘관리자’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노랑’,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놀고 싶은 ‘초록’, 무엇이랄도 시도하려는 ‘갈색’이 등장하였으나 역할체계가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아 유형 구분에서 제외하였다. 참여자의 내면아이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식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추방자인 ‘빨강’의 핵심감정이 파괴적인 소방관인 ‘파랑’과 ‘검정’을 자극하면 이를 통제하기 위해 관리자인 ‘회색’과 ‘하늘’이 활성화되는 구조를 보였다. 관리자인 ‘회색’과 ‘하늘’은 추방자인 ‘빨강’을 한심하게 여기고, 소방관인 ‘파랑’은 추방자인 ‘빨강’을 슬픔을 자해 욕구로 표현하였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참여자의 내·외부 세계를 정지시키는 ‘하늘’은 또 다른 관리자인 ‘회색’과 소방관인 ‘파랑’과 갈등하는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내용은 “빨강이 가장 강해요, 사랑을 너무 원해서 검정(공격성)과 파랑(자해)이 힘들어해요(9회기)”, “회색(통제)은 하늘(무기력)을 어찌지 못해서 내버려둬요(12회기)”, “파랑(자해)은 자신을 막는 하늘(무기력)을 싫어해요(15회기)” 등의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내면아이상담(내면아이치료 및 내면가족체계치료)’을 통한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는 내면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상담을 통해 각 내면아이의 역할과 입장을 경청 및 공감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내면아이는 상담이 진행될수록 각자의 역할과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어 참여자가 자신의 내면접촉을 더욱 수월하게 느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자신을 대하는 거부적·학대적인 태도를 애도, 위로하는 수용적인 모습, 파괴적인 내면아이들을 훈육하며 자해 욕구와 의존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가는 모습

이 관찰되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고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였던 태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표현하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함께 관계 접촉을 시도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겪으며 자기 비난의 고통을 호소하게 된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내면아이상담(내면아이치료 및 내면가족체계치료)'을 수행한 사례연구이다. 참여자 오빠의 의뢰로 시작된 상담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21회기 진행하였으며, 녹음, 메모 노트, 사진 촬영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2인의 슈퍼바이저에게 각기 상담과 연구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

첫째, 참여자는 어린 시절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부적응적 성격과 행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충동성, 공격성, 대인관계, 알코올 문제 등의 모습으로 세상과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인한 삶의 무의미성과 함께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눈치보는, 자학하는, 뒤집어쓰는 아이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자기 비난이 내면화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모습은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불행, 슬픔, 절망감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며(박경진, 2005), 우울(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대인불안(박주희, 신현숙, 2014), 자기비하(Osofsky, 1997), 부정적인 자기표상으로 자신을 평가절하 하는 부정적 사고(류은주, 2019)의 모습을 보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품행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들(최장원, 김희진, 2011)에 의해 지지된다. 더욱이 참여자는 고통스러워 하는 자신에 대한 위로와 수용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이 받

표5. '내면아이상담' 후 참여자의 변화 요약

변화		회기	참여자 진술
내면아이 체계구조 자각	관리자들의 역할 내려놓기 ↓ 내면아이 접촉용이	11회기	(가족체계 도식화가) 아이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깊게 느껴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회색이 빨강에게 편지 써도 된대요. 해보래요.
		12회기	하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 몰랐네요. 파랑도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다니. 이럴 줄 몰랐어요.
		13회기	회색은 문을 조용하게 지켜요. 원래 상담 싫어했는데, 순해졌어요. ('내면아이상담'으로)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할 때마다 저도 새롭네요.
		21회기	하늘이 괜찮대요. 파랑을 위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대요. 집에서 내면아이 만나기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위로	내면아이 위로·연민	11회기	하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보상이래요. 이렇게 애쓰면서 살았나 싶고 잔하고 애쓰면서 살아서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13회기	파랑에게 힘을 쓰더라고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늘과 파랑이 저러고 (갈등구조로) 있는 게 안타깝네요..
		19회기	(내면아이 심상작업)중학생? 웅크리고 있는데, 대개 불안하고 초조해요. 대화를 거부하네요. 다시 오겠다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거렸어요.
		21회기	(내면아이 만남)세 번 시도했어요. 만날 때까지. 울고 있었는데 나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무섭대요. 손을 잡아 달랬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애잔했어요. 개가 처한 상황이,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알 거 같아서.
	자기 통제	15회기	노랑과 빨강에게 사랑을 준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개(옛 연인)를 다시 만나면 안 되겠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	18회기	저한테 미안해요. 그 사람 만난 거. 할 말도 하고 나를 보호했어야 하는데. 큰 상처예요. 한창 즐거워야 할 시절을 그렇게 보낸 저가 마음 아파요.
자기표현 및 가족과의 관계 변화	아버지에 대한 연민·태도변화	14회기	아빠가 잔하게 보이기도 해요. 자기도 맞고 살고 소외당하고. 요즘 인사도 해요. 아빠 말에 맞장구 쳐 줬더니 신나했어요. 외로웠나 봐요.
	생각·감정 표현 시작	15회기	요즘에는 말해요. (자해 욕구가) 자극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아빠랑 원래 말 안하는데, 놀러가고 싶다 했더니 갔다 오래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16회기	(참여자의 모친)OO이가 자기표현이 많이 늘었어요. 하기 싫다고 하고 짜증난다고 말하고, 그런 표현이 많이 늘었어요.

주. 색으로 표현된 참여자의 내면아이들: 빨강(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사랑 갈구), 검정(공격성, 분노), 파랑(자해 욕구), 회색(경계·통제), 하늘(무기력), 노랑(타인에게 잘 보이려 노력), 초록(친진난만 어린이), 갈색(무엇이든 시도해보려 노력하는)

아온 학대를 자기에게 다시 표출하는 내면적 행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Bradshaw, 1990/2004). 즉, 참여자는 부모 폭력의 영향으로 다양한 정서 및 대인관계, 행동 조절문제, 내면화된 자기비하 등의 부정적 특성을 보이고, 내면적 행동을 통해 자기 학대를 반복적으로 자행하며 자기 비난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참여자의 주요 내면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슬픔을 가지고 있는 '빨강'(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을 갈구), '빨강'의 고통 방어를 위해 극단적 행동을 시도하는 아이인 '파랑(자해 욕구)'과 '검정(공격성과 분노)', 내·외부세계를 평가하고 경계 및 통제하는 '회색(경계, 통제)'과 '하늘(무기력)'이 발견되었다. 이는 내면아이치료에 참여한 집단원들이 어린 시절 부정적 경험을 한 상처 받은 내면아이들을 여러 명 경험하며, 각 내면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처럼 개인의 성격과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기능하였음을 보고한 오제는

(2009)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이 내면아이들은 내면가족체계이론에 따라 버림받은, 무가치, 공허감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비난받는 ‘빨강’을 추방자로, ‘빨강’의 고통을 진정시키고자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파랑’과 ‘검정’을 소방관으로, 내면체계와 외부를 경계하고 통제하는 ‘회색’과 ‘하늘’을 관리자로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외부의 체계에 반응하고 관계하며 참여자의 내면체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면아이상담’은 참여자의 핵심 감정에 대한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관리자(경계하는 내면아이), 소방관(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내면아이), 추방자(미해결된 핵심감정을 가진 내면아이) 순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참여자의 ‘자기’ 강화를 위한 추방자와의 작업은 관리자와 소방관의 신뢰와 허락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Bonnie(2013/2016)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즉, 본 연구에서 내면아이들의 유형과 관계역동을 고려하여 체계적 시각으로 진행한 ‘내면아이상담(내면아이치료 및 내면가족체계치료)’은 참여자의 내면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미해결된 슬픔과 욕구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효과적인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참여자는 ‘내면아이상담’이 진행될수록 자신의 무의식 속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거부적 태도는 내면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위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파괴적인 내면아이들을 훈육하며 자해 욕구와 의존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적대적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연민과 이해의 태도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성장은 내면아이치료의 핵심적 치유방법인 미해결된 감정의 표현과 수용이 자신을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인식변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기 비난의 태도를 내려놓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며(박영현 외, 2015),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연결되어 대인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김순옥, 홍상옥, 2012) 그리고 내면가족체계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죄책감, 적대감,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수용성, 감정통제, 낙관성, 대인관계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힌 연구(이혜옥, 연문희, 2015)들에 의해 지지된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변화는 내면체계의 관계역동을 고려해 실시한 본 연구의 ‘내면아이상담’을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여러 내면아이들을 판단 없이 관찰, 수용하는 과정을 자신에 대한 수용으로 확장시키고, 내면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 공감하는 과정이 스스로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나타났다. 즉,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은 참여자의 내면아이들이 참여자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내려놓음으로써 참여자의 ‘자기’가 강화되고 지도력을 회복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상담개입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접목한 ‘내면아이상담’으로 내면아이의 역할과 구조 그리고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상담과정에 활용하였다는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정서·행동 문제와 내면화된 자기 비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의 출발점이 어린 시절 원가족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참여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단일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상담의 효과성을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성별, 연령, 주요

호소문제 등이 다른 다양한 대상 혹은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체계적 관점을 접목한 ‘내면아이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내면아이치료와 내면가족체계치료를 접목시킨 ‘내면아이상담’이 여대생 참여자의 자기 비난적 모습 탈피, 자기 통제력 및 대인관계 회복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바람직한 ‘자기’의 강화를 발달과업으로 갖는 청소년 및 청년기 내담자를 만나는 임상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의 ‘내면아이상담’ 기법의 사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권수영, 성기정 (2017). 내면가족시스템(IFS)이론 기반 감정관리 코칭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1(2), 23-43.
- 김순옥, 홍상옥 (2012). 영화를 활용한 내면아이 치유 프로그램이 자기수용, 대인관계, 부부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11-411.
- 김예정, 김득성 (2006).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6), 141-153.
- 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 비행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류은주 (2019).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6(5), 55-84.
- 박경진 (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현, 박승민 (2015). 어린 시절 상처 치유 경험과 부부관계 변화과정 연구: 내면아이치유 집단상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1), 239-271.
- 박주희, 신현숙 (2014). 가정폭력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발달자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291-315.
-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인형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97-124.
- 박진아 (2016). 청소년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치료연구**, 14, 65-80.
- 백승아, 구본용 (2019).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초기부적응도식, 내면 아이 및 분노표현 방식 간의 구조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6(1), 103-130.
- 신예순 (2020).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IFS(내면가족체계)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검증**.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 오제은 (2009). **자기사랑노트**. 서울: 산티.
- 오제은 (2009). 상담일반: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 이혜옥, 연문희 (2015). 장애자녀 어머니의 IFS 치료. **가족과 가족치료**, 23(4), 711-737.
- 조성호 (2000). **경계선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최광현 (2014). 청소년 내담자를 위한 인형치료에서 ‘내면아이’의 중요성과 치료적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2(4), 211-224.
- 최장원, 김희진 (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 황경애 (2020). 내면아이상처로 대인관계의 위축감을 갖는 50대 주부를 위한 통합적 상담사례

- 연구. *코칭연구*, 13(1), 91-112.
- Arnett,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 Barlow, M., Thomson, E., Johnson, D., & Minns, A. (2005). Late neurologic and cognitive sequelae of inflicted traumatic brain injury in infancy. *Pediatrics*, 116(2), e174-e185.
- Bonnie, W. (2016). 참자아가 이끄는 소인격체 클리닉: IFS 워크북[*Self-Therapy Workbook: An Exercise Book For The IFS Process*]. (이진선, 이해옥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3년 출판).
- Bradshaw, J. (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치유[*Homecoming: Reclaiming and Championing Your Inner Child*].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0년 출판).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nitial and long-term effects: A review of the research. *A source book on child sexual abuse*, 143-179.
- De Bellis, D., Hooper, R., Spratt, G., & Woolley, P. (2009). Neuropsychological findings in childhood neglect and their relationships to pediatric PTSD.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15(6), 868-878.
- Goldsmith, E., & Freyd, J. (2005). Awareness for emotional abuse.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Hildyard, L., & Wolfe, A. (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6-7), 679-695.
- Missildine, H. (2006). 몸에 밴 어린 시절[*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석규, 이종범 역). 서울: 가톨릭 출판사(원전은 1963년 출판).
- Moore, M. (2013). Coaching the multiplicity of mind: A strengths-based model. *Global Advances in Health and Medicine*, 2(4), 78-84.
- Osofsky, D. (1997). Community and Domestic Violence Exposure: Effects 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rauma: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155-180.
- Prasad, R., Kramer, A., & Ewing-Cobbs, L. (2005). Cognitive and neuroimaging findings in physically abused preschooler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0(1), 82-85.
- Schwartz, C. (2010). 내면가족체계치료[*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김춘경, 변외진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5년 출판).
- Van de Velde, S., Bracke, P., & Levecque, K. (2010).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23 European countries. Cross-national variation in the gender gap in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71(2), 305-313.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3월 31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05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05월 22일

Inner Child Counseling of Female College Student Who Struggles with Self-criticism Caused by Parental Violence: A Case Study

Lee, Jin-Kyoung Hwang, Kyung-Ai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lp a female college student who was struggling with self-criticism due to the effect of 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To alleviate maladjustment symptoms and promote psychological, emotional, and social growth of the participant, 'Inner Child Counseling', which combines Inner Child Therapy and Inner Family System Therapy, was provided for a total of 21 s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 has been reinforcing her self-criticism with painful feelings, maladap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lf-rejection caused by her experiences of parental violence. In addition, the participant was found to have several inner children with distinctive roles, such as a child who had unfinished sadness in her childhood, a child who wanted to protect her inner self with extreme behaviors, and a child who wanted to control her inner and outer worlds. The participant of this study showed positive changes through 'Inner Child Counseling', such as making a safe contact with her inner children, accepting unfinished core emotions, restoring control over symptoms and self-expression, and improving interpersonal ski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ner Child Counseling'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the change and growth of people suffering from parental violence.

Key words : Inner Child, Internal Family System, Self-Criticism, Parental Violence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해 온 40대 부부의 이마고부부상담 사례연구

권 형 진*

권형진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본 연구는 부부 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해 온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이마고부부상담'을 적용, 실시한 사례연구로 부부의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경험을 통해 부부의 재연결 및 장기적 관계회복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마고부부상담(이마고부부대화법, 부모자녀대화법, 행동수정요청대화법)을 도구로 하여 상담회기에 따른 시간 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상담기간은 2018년 5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0회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부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한 원인으로 부부는 문제에 대한 인식, 욕구 및 신념, 신체 접촉 욕구 등의 차이 및 원가족 내 어린 시절 상처가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발달단계 중 탐색기에 상처를 가진 부부로서, 남편은 '거리 두는 자', 아내는 '추적자'로 이마고 짝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둘째, 부부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숨은 욕구를 새롭게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충족은 부부관계(이마고대화법)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자각하였다. 셋째, 부부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된 부부대화를 습득함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배우자에게 행동수정요청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부부가 재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논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주요어 : 부부갈등, 40대 부부, 이마고부부상담, 사례연구

* 교신저자 : 권형진, 권형진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52696)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47-3 권형진소아청소년과의원,
Tel : 055-746-7746, E-mail : imihusda@hanmial.net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인생 주기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전환이다. 결혼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달과제를 요구하며, 그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부부는 여전히 원가족과 연결되었지만 독립적인 하위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원가족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한 개인이 원가족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발달과제이며,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개인이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심각한 의견의 불일치를 겪거나 의사소통의 문제, 문제해결 능력의 결여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부가 많은데, 이 같은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상담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김유숙, 2015).

특히 중년기 부부의 경우,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진입하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자녀와의 정서적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부모들이 빈둥지(empty nest)를 경험하게 된다. 중년기는 부부간 정서적 친밀함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서로의 역할에 대한 필요와 기대가 커지게 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 부부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 점차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수입과 여가의 증대되며 여성 지위가 향상되는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이 경험하는 중년기 관계의 어려움은 부부갈등 및 이혼의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오제은, 2013). 그러므로 인생 발달 단계에서 전환기에 있는 중년부부에게는 서로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 과업으로, 무엇보다 서로의 차이점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이러한 조율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의 부부가 호소하는 부부 문제의 원인을 ‘이마고부부상담’을 적용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같은 이마고부부상담 연구에 앞서 문헌 조사를 통한 이마고부부치료 관련 연구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내의 이마고 부부치료 관련연구들을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위주로 살펴보았는데(미술치료, 이론 비교연구 등 제외), 총 11편의 연구가 파악되었다. 해당 선행연구들을 주제와 접근방법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송정아, 2004, 2005),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오제은, 2005; 송정아, 2006; 변복수, 2010), 기존 부부치료 모델들과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의 효과성 비교 연구(김덕수, 2011) 등이 있고, 또한 현상학적 연구로는 기혼여성의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이옥선, 2011), 이마고부부관계치료를 통한 이혼 위기 부부의 심리적 치유과정(정정화, 2015)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례연구는 이마고부부관계치료 경험을 통한 부부관계 기대감 변화 과정(백운영, 2012), 이혼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마고부부대화법 적용(변은주, 2017), 관계갈등 부부의 상처 입은 내면아이 인형치료(박진수, 최광현, 2020)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부 갈등의 근본원인으로서 부부의 발달 단계의 상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와 ‘이마고부부상담’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사례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해당 부부 내담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개인 내면의 분노와 상처를 다루지 못한 채 장기간의 부부갈등을 거리두기로 대응해 온 40대 남녀의 갈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러한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기에 ‘이마고부부상담’은 매우 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마고부부상담 접근을 통해 부부간 갈등을 거리두기로 반응해 온 40대 부부가 서로의 차이점을 자각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통해 부부의 재연결 및 관계의 회복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가 부부 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부부는 ‘이마고부부상담’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나타내었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가 경험한 ‘이마고부부상담’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

부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부 간 갈등의 해결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정서중심 대처는 많은 부부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 방식 중 하나인데 이는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이다. 즉 이와 같은 해결방식을 통한 시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외부의 정서적 지원을 추구하고, 종교에 의지하는 것 등이 있다.

부부 상담에서 부부의 갈등해결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근은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부부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Gottman과 Silver (2012/2015)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네 가지 위험요인’인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들 부부는 결국 이혼을 경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부정적, 고착된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에서는 부부

의 문제가 반복될 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주고 받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부갈등의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부부의 ‘가짜독립성(pseudo independence)’을 직면하는 방법이다. 가짜독립성은 자신이 혼자며 무기력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를 부인하려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기충족이라는 가짜독립적인 태도이다. 사람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원가족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사람과 닮은 파트너를 고르려고 한다는 것이다(Robert & Joyce, 2000/2015). 한편, 박진수와 최광현(2020)은 최근 연구를 통해 인형을 통한 시각화와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상처 입은 내면아이 인형치료를 부부치료에 적용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부부가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현재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마고부부상담의 프로그램

이마고부부상담은 부부와 치료사 관계의 전이를 부부간 전이의 문제로 바꾸는 시도를 적용하여 치료사가 아닌 커플이 관계를 회복하는 치료적 역할을 맡는 접근방법이다. 이마고부부상담에서는 부부관계의 단절이 부부갈등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부부치료의 목표는 부부의 연결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다(Brown, 1999/2009).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두 사람으로 구성된 것으로 묘사하나, 이마고부부상담에서는 사랑의 관계를 두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과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둘 사이의 공간은 부부와의 작업에서 핵심 주제이다. 관계에서 그 둘 사이의 공간은 파트너들 사이의 모든 무형의 것들을 포함한다. 모든 말, 목소리 톤, 모든 시선이 이 에너지 분야에 기여한다. 또한, body language(비언어적 단서라고 함)의 무언의 의사소

통도 포함한다. 부부를 위한 첫 주문은 둘 사이의 공간에서 모든 부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Hendrix & Hunt, 2019a). Hendrix와 Hunt는 또한 가장 ‘잘 맞지 않는’ 커플들조차도 그들의 결혼을 안전과 성장으로 가득 찬 관계로 바꾸기 위해 다음의 원리를 통해 그들의 차이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당신의 보완성에 감사를 표시하고, 파트너의 욕구를 알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다가서고, 서로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으며,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아름다움과 치유력을 배우도록 하라는 것이다(Hendrix & Hunt, 2019b).

과정 1: 이마고부부대화법(IMAGO Dialogue)

‘치료사의 일은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Heinz Kohut과 Carl Rogers의 개인적 패러다임과 달리, 관계적 패러다임은 내담자의 주요한 타인이 내담자에게 반응과 공감을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돕는 것으로 이는 내담자 개인보다는 내담자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하는 것이다. 즉 부부가 대화관계 가운데서 더 진실하게 될 수 있고 치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적 패러다임의 힘이다(Luquet & Hannah, 1998/2018).

모든 상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모든 치유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부부치료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대화 과정을 통해 부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끌어 간다. 이 대화는 ‘반영하기-인정하기-공감하기’의 순서로 정해진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부상담사는 부부가 상담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대화의 과정 안에 머무르게 한다. 이 부부대화법이 삶의 일부분이 되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도록 이끄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다(Brown, 1999/2009). 이마고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이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이마고 치료에서는 가능한 자연 상태

로 머물기를 요구한다. 보통의 많은 치료사들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마고의 기본전제는 부부의 단절 역동에 부부가 같은 정도로 기여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마고 치료에서는 편견 없이 과정에 머무를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상담자나 의사에게 어떠한 정보도 취하려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치료사가 이마고 치료의 기본인 중립에 서는 것을 해치게 된다고 여긴다. 가능하면 많은 부부대화를 요구한다. 치료와 성장은 교훈적인 정보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과정’에서 발생한다. 단지 부부가 좋은 대화를 했을 때 좋은 요소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짧은 교훈 정도는 유용하다고 여긴다(Beauvir & Crpuchettes, 2016). 그러므로 ‘이마고 부부상담’에서는 부부가 함께 상담에 참여하여 ‘이마고대화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과정 2: 부모자녀대화법(Parent & Child Dialogue)

사랑은 내면의 전의식의 힘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의 로맨틱한 사랑의 선택은 로맨틱한 어린 시절 양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마고 치료는 사랑을 어린 시절 양상으로 보는 새로운 구조로 보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살펴보고 하고 사랑하는 방법과 기대를 이해하게 돕고, 사랑의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한다(Hoseini & Movahedi, 2016).

이에 따라, ‘부모자녀대화법’은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역할, 상담실에서 치료사가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을 부부가 서로 해주도록 하는 대화법이다. 부부 각자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상처를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부모 역할을 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넌 나와 사는 게 어머니?’라고 부모 역할의 배우자가 부모 역할을 하면서 ‘반영하기-인정하기-공감하기’의 과정을 진행한다. 만약 상담사가 이런 대화 과정 속에 부부를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깊은 상처로 내려 갈 수 있고, 두 사람이 부부 사이에 경험한 고통이 곧 어린 시절의 고통을 재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Brown, 1999/2009).

과정 3: 행동수정요청대화법(Behavior Change Request, BCR)

‘행동수정요청대화법’은 배우자의 충족되지 못한 유년 시절의 욕구를 파트너가 채워줌으로써 치유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공생적 관계방식인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정을 깨고 자신의 욕구를 분명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개별화를 촉진한다. 요청을 받는 배우자는 요청을 받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공감을 통해 연결하는 것을 시도하여 또한 치유가 일어난다(Hendrix & Hunt, 2008).

BCR을 진행하는 핵심은 매 2주마다 커플들이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행동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여긴다. 만약 커플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을 때 커플에게 치료자가 “이것이 아직도 당신에게 중요한가요?”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것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면?” 이라고 묻는다. 2회 이상 실패를 한다면 이마고부부대화법으로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화한다.

행동을 바꾸는데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 BCR을 요청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권리라는 입장에 서지 않도록 이를 분명히 한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한 것이지만 사랑은 선물이다. BCR은 동의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인데 또한 배우자가 사랑받는데 필요한 방법이다. 기대를 하지 않고 요청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Beauvoir & Crpuchettes, 2016).

방 법

연구 대상 및 상담 의뢰

본 연구 대상 부부는 둘 다 40대로, 각자 원가족에서는 장남, 장녀이다.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결혼 기간은 20년 이상이며,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다. 2녀 1남의 자녀들을 두었으며, 두 딸은 출가하였고, 현재 아들과 동거 중이다. 부부는 오래 전 매우 심각한 부부 갈등 발생 후,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 해오다가 2018년 5월 가정의 달에 부부 갈등이 고조되는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부부상담을 권유 및 안내받고 부부가 상담받기로 합의하여 본 부부상담전문가(연구자)에게 부부상담을 의뢰해왔다.

부부의 주 호소

부부는 1회기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주 호소 내용으로 부부상담에 오게 되었음을 정말 힘들게 조금씩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은 축어록 내용의 일부이다.

아내의 주 호소 : “사실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간신히 잠을 청하고 있는 상태다. 주변에 가족들(결혼한 딸들)이 있어도 힘든 것을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했고, 아들이나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힘든 것을 표현할 수 없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상담에 왔다. 남편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며, 밖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편이다. 남편이 술을 안마시니까 믿는데, 기분파라서 돈은 잘 쓴다. 남편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여성과는 밖에서도 만나고 여성의 생일도 챙겨주고 문자도 주고받고 차도 같이 마시는데, 그게 힘들다. 내가 잔소리

는 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남편 사랑도 받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안 들어 준다.”

남편의 주 호소 : “나는 지금 아내에게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종교 생활하면서 주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아내에게는 기분 나쁘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은 아내가 싫어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잘 지내다거나 하는 것을 의지를 갖고 하지 않고 있다.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반성을 많이 하고 지금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도 힘드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 증상도 자주 생기고 있어서 힘들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오래 전 잘못된 일을 아내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연구 기간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국제공인 이마고치료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수련감독’ 자격증 소지자로, 연구를 위한 ‘이마고부부상담’은 2018년 5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0회기(각 회기별 90분씩 진행)를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부부에게 연구를 위한 ‘이마고부부상담’의 방법, 녹음과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신청서 및 녹음 동의서를 작성 후, ‘이마고부부상담’을 실시하였다. 부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윤리적 고려로, 부부의 실명이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 등은 모두 삭제하고 작성하였다. ‘이마고부부상담’의 회기별 녹음 내용은 축어록과 메모 노트를 작성하고, 상담회기에 따른 시간 계열 분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동료 상담전문가(‘국제공인 이마고치료사’ 및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 자격자)의 슈퍼비전을 총 3회(초기, 중기, 말기)받은 바 있다. 동료 상담전문가의 슈퍼비전은 초기-이마고부부대

화법의 전달과 연습에 있어서 부부의 동의를 얻어 부부가 서로 마주 보고 대화를 하게 하는 대화 구조의 중요성과 부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연구자(남성상담자)의 부드러운 시선과 태도, 중기-부부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상처를 꺼내야 하는 부부 상담에 필요한 상담자의 섬세한 안내, 말기-부부의 행동수정 요청이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상담자 점검의 중요성을 다루고, 중년기부터 노년기 준비까지 부부의 미래 비전 다루기 등의 내용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졌다.

이마고부부상담의 회기별 내용 및 기법

본 연구 대상 부부를 위한 이마고부부상담 각 회기별 내용 및 상담 기법은 표 1과 같다.

축어록에 나타난 부부의 주요 표현 내용 분석

본 연구를 위한 부부의 주요 감정표현 내용을 축어록을 중심으로 하여 ‘이마고부부상담’ 각 회기별로 요약, 분석한 것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요약된 것처럼, 부부상담 초기인 1~2회기에 부부는 상대에 대한 욕구와 과거의 상처와 각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장기간의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해 온 요인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부부상담 3~5회기에 부부는 상대에 대한 욕구의 차이점, 결혼 직전과 혼인 기간 중 과거의 상처에 대한 서로의 차이점, 고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 등을 자각하게 되었다. 부부상담 6~7회기에 부부는 각자 어린 시절 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부상담 8~9회기에 부부는 서로에게 원하는 행동 수정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부부상담 10회기에 부부는 공동의 미래비전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표 1. 이마고부부상담의 회기별 내용 및 기법

회기	주제	내용
1	주 호소 확인, 부부상담 목표, 합의, 설정	상담 및 녹음동의서 작성 오래 전 심각한 부부 갈등 후 거리두기 표현
2	부부대화법 이해	이마고부부대화법 1
3	반영하기 경험	이마고부부대화법 2
4	상대에게 감정표현	이마고부부대화법 3
5	비합리적 신념 확인	이마고부부대화법 4
6	어린 시절, 미해결 과제 탐색	부모자녀대화법 1
7	어린 시절, 잃어버린 자아 탐색	부모자녀대화법 2
8	각자의 욕구 표현	행동수정요청대화법 1
9	상대 욕구 표현 시 자신 책임지기	행동수정요청대화법 2
10	부부의 미래를 위한 행동수정요청 점검 및 상담 종결	부부의 행동수정요청 탐색 (부부 요청으로 현 상담은 잠정 종결)

표 2. 축어록에 나타난 부부의 주요 표현 내용과 분석

회기	부부의 주요 표현 내용 (축어록 일부)		연구자 분석
	남편	아내	
1	아내가 편안하지 않고 힘들다고 하니 안타깝다 나는 아무런 감정적 고통이 없는데 아내만 힘들어 한다	계속 그 생각(오래 전 심각한 부부갈등을 초래한 사건)만 난다 남편이 장기간 나에게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난 것 같다	-부부의 상대에 대한 욕구와 과거의 상처 확인 -부부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 확인
2	(나는) '사랑해'라는 말과 부드러운 말투를 원한다	(나는) 남편이 화내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을 원한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 친구, 선배를 좋아해서 집을 등한시하였다	-부부가 장기간의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하게 된 배경 파악
3	(나를) 믿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	-부부 각자의 '비합리적 신념'의 차이 확인
4	(나의) 아내에 대한 신뢰감은 5점 만점에 5점이다	(나의) 남편에 대한 신뢰감은 5점 만점에 3점이다	상대에 대한 신뢰감의 차이 확인
5	아내는 따로 자는 것을 원한다 아내는 소리, 냄새에 민감하다	오랜 기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남편이 피부접촉을 매우 싫어했다	부부의 차이점 확인
6	아내가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 생각에 집착한다(오래 전 심각한 부부갈등사건 관련)	시아머니가, 아들 낳지 못하면 남편이 밖에서 만들어 와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상처가 되었다	부부 각자의 깊은 상처 확인
7	(나는) 생각과 행동은 잘하는데 감정과 감각이 느리다 '느끼지 마'라는 지시를 받는 것	(나는 초등학교 때) 장녀로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해서 그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이 정지되는 느낌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 잃어버린 자아 확인

	같다(과거에도 지금 아내에게 도..)	을 받았다	
8	(어린 시절) 내가 어머니에게 원했던 것은 용돈이었다 어머니의 음식솜씨가 안 좋고 집이 어려워 친척 집에 가서 먹 고 온 적 많다 용돈도 삼촌에게 받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모습이어 서 안 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확인
9	(나는) '사랑해'라는 따뜻한 말 을 원한다	(내가) 남편에게 요청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 음식 만드는 것을 (내가 필요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요청한 행동수정요청내용 확인
10	(앞으로는) 아내가 지난 과거의 안 좋은 기 억을 다 잊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내가 말할 때 남편이 화를 내지 않고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부부 각자 원하는 행동수정 요청의 지속을 위하여는 후속 부부 상담이 더 필요함

발달단계에 따른 부부의 상호작용

부부의 상호작용을 발달 단계에 따라 4단계로 설명하는데 이 4단계는 애착, 탐험, 정체성 형성, 능력으로 구분한다. 이중 탐험단계의 부부 상호작용은 거리 두는 자와 추적자로 설명한다. 발달적 관점에서 탐색기는 호기심의 손상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손상되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 최대화하는 사람은 추적자가 되어 잊어지고 방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최소화 하는 사람은 거리 두는 자가 되어 밀착되거나 흡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Nedra, Wendy & Orli, 2015). 거리 두는 자는 연결감을 좋아하고 즐기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매임이나 약속의무감은 없다. 거리 두는 자가 배우자에게 감정과 요구를 나누는 시도를 할 때 배우자는 이를 담아두지 못한다. 이에 거리 두는 자는 배우자와 갖지 못한 친밀감을 제공하는 사람과 외도를 할 수 있다. 추적자는 배우자에게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갈망하고 또 이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거리 두는 자는 추적자에게 분노와 비난만 듣게 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거리 두는 자는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추적자는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여 서로 갈등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치료자는 거리 두는 자에게 감정과 요구를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거리 두는 자에게 침몰하는 느낌을 힘들어하여 헌신적인 관계를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직면시킨다(Hendrix, 2014).

남편 - 거리 두는 자

이마고부부상담 이론 중, 부부 중에 '거리 두는 자'는 '회피자'와 달라서 연결감을 좋아하고 즐기고 받아들인다는 특성이 있다(Hendrix, 2014)고 하였는데, 2회기 부부상담 축어록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다.

아내 : 남편은 친구, 선배를 좋아해서 결혼 후 상당 기간 집에 늦게 들어왔다. (2회기)

남편: 나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 00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성심

것 대하고 있다. (3회기)

이는 배우자에게 매임이나 약속 또는 의무감이 없다는 ‘거리 두는 자’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거리 두는 자’는 배우자와 갖지 못한 친밀감을 제공하는 사람과 외도를 할 수 있다(Hendrix, 2014)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내 - 추적자

‘추적자’는 배우자에게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갈망하고 또 이에 따라 움직인다(Hendrix, 2014)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3회기 부부상담 축어록에는 아내가 남편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표현이 있으며, 6회기 부부상담 축어록에 보면 남편도 역시 아내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표현이 있다.

아내 : 남편은 나에게 장기간 눈길도 주지 않았다. (3회기)

아내 : 악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3회기-비합리적 신념 Check List)

남편 : 아내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 생각에 집착한다. (6회기)

그리고 아내는 위와 같은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오랜 기간 남편에 대한 비난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아내의 경우 ‘추적자’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아내의 어린 시절 상처 표현

6회기 ‘부모자녀대화법’에서, 아내는 다음과 같이 남편에게 표현하였다.

아내 :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부부 갈등이 심해서

그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6회기)

아버지가 출장 가서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6회기)

위의 축어록 내용에서 보듯이, 아내는 자신의 원가족 내 초등시절부터 무서운 친정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부모자녀대화법’의 장면에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서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면을 발견하였으며, 그 결과 위의 내용과 같은 중요한 요인을 자각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편의 어린 시절 상처 표현

7~8회기 ‘부모자녀대화법’에서, 남편은 다음과 같이 아내에게 표현하였다.

남편 : 느끼지 말라는 지시를 무언중에 받은 것 같다. (7회기)

초등학생이었을 때 용돈이 부족하였는데 삼촌이 주었는데 받았다. (8회기)

어머니의 음식솜씨가 형편없어서 멀리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먹고 온 적이 많이 있었다. (8회기)

남편은 남자로서 어린 시절 상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위의 축어록 내용에서 보듯이 어린 시절의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정서적 지지도 받지 못하여 힘들었던 가족 환경을 곁으로는 덤덤하게 이야기하였다.

비합리적 신념척도에 나타난 부부의 차이

비합리적 신념척도에 나타난 부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비합리적 신념척도에 나타난 부부의 차이(3회기)

비합리적 신념 Check List	남편	아내
1. 자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	
2. 사랑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한다.	X	**
3.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나쁘며 악랄하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X	****
4.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멸이다.	△	**
5.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	X
6.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은 커다란 걱정 of 원인이 된다.	X	**
7.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주어진 자기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이를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	**	X
8.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고 자신이 의존해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	X	**
9.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은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며, 인간은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X	**
10. 인간은 주위의 다른 사람이 환난 속에 처했을 경우 자신도 당황할 수 밖에 없다.	**	**
11. 모든 문제에는 가장 적절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며 그것을 찾지 못 한다면 파멸이다.	X	X

****강한, **보통, △중간, X응답안함

참여자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가 부부 상담 1~2회기 중 발견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비합리적 신념 Check List가 이마고부부상담의 기본 도구는 아니나, 3회기 부부상담 시 부부의 차이점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위의 비합리적 신념 Check List의 작성 작업을 통해 부부 각자의 주관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에서 남편의 가장 강한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었으며, 아내의 가장 강한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나쁘며 악랄하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

들은 반드시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으로, 오래 전의 심각한 부부 갈등을 거리 두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의 하나인 부부의 신념의 차이로, 부부의 차이점이 3회기 부부 상담에서 이미 파악되기 시작했다.

결 과

참여자 부부를 대상으로 ‘이마고부부상담’을 적용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부부의 주 호소		부부대화법 : 발달단계의 상호작용 이해 ⇨ 배우자 이해	
남편	나는 감정적 고통이 없는데 아내만 힘들어 한다 아내는 오래 전 사건(내 잘못)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남편은 친구, 선배를 좋아해서 결혼 후 상당 기간 집에 늦게 들어왔다	아내가 오랜 동안 그 말(내 실수)을 반복해서 힘들었다
		남편: 거리 두는 자	아내: 추적자
		부모자녀대화법 : 어린 시절 상처 인식⇨ 배우자 이해	
아내	그 생각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렵다 (:오래 전에 심각한 부부 갈등을 일으킨 사건) 남편은 오랫동안 나를 잘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편 : 아버지부재로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 역할을 했다	아내 : 부모의 부부갈등으로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을 기회를 잃었다
		행동수정요청대화법	
부부	이 고통을 멈추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남편: 아내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실천하기로 결정한다	아내: 내 불편을 비난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로 선택한다
		부부의 미래 비전: 치유와 성장	

그림1. 부부에 의해 표현된 이마고부부상담의 효과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가 장기간의 부부 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참여자 부부는 부부갈등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욕구 및 신념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 초기에 부부 갈등 문제에 대하여, 아내는 오래전 심각한 부부 갈등의 내용을 침투사고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남편은 현재 자신이 아내에게 잘하고 있고 미래에도 아내에게 잘할 거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말이 비난으로 들려서 힘들어 했다. 배우자에게 원하는 욕구의 차이도 나타났다. 남편은 애정표현을 말로 해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길 바랐다. 신념에 있어서, 아내는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 받아야 한다는 응답, 남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응답하였다.

상담 중기에 부부는 신체 접촉 욕구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이 피부접촉을

싫어하였고, 남편이 보기에 아내는 소리, 냄새에 민감하여 따로 자는 것을 원하였다. 원가족 내 어린 시절 상처 경험의 차이로, 장남인 남편은 아버지 부재로 어머니와 밀착해서 살았고, 장녀인 아내는 부모의 부부 갈등으로 힘들었고 가부장적 아버지가 싫었다. 부부는 욕구충족 방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은 어려서 용돈도 부족했고 어머니의 음식솜씨가 없어 삼촌이나 다른 친척에게 받았고, 아내는 욕구를 참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상담 말기에 발견된 부부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남편은 아내의 명확한 행동수정요청(예: 가사 분담, 새벽잠이 중요한 자신을 편안히 두어 달라)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나, 자기 속마음은 숨기는 편이고, 아내는 과거로 인해 힘든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비난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이었다. 즉, 부부는 발달 단계 중 두 사람 모두 탐색 시기에 상처를 가진 부부로서, 남편은 '거리 두는 자' 아내는 '추적자'로 '이마고 짝'임을 자각하게 되었

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여전히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서 자신과 밀착되었던 어머니가 연상되어 무의식적으로는 벗어나고 싶었던 속마음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어 부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부의 차이점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차이점이 부부가 장기간의 부부 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하게 된 대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부가 ‘이마고부부상담’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마고대화법’을 통하여 부부는 부부 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해온 관계로 표현하지 못했던 숨은 욕구를 새롭게 듣고, 이에 대한 충족이 부부관계(이마고대화법)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부모자녀대화법’을 통하여 부부는 각자 서로의 원가족 내 어린 시절 미해결과제와 상처를 알게 되었는데, 전에는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공감도 하는 계기가 시작되었다. 즉, 부부는 서로 어린 시절 경험이 현격히 달라서 그동안 상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부분에 부부 갈등의 힘겨루기가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나타나게 된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상담 말기에 부부는 상담 전에는 의사소통이 힘들었으나, 현재는 부부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의사소통의 성공경험을 하게 되어 앞으로 부부 스스로 시도할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생기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상담의 잠정적 마무리를 선택하게 되었다.

셋째, 부부가 경험한 ‘이마고부부상담’의 효과를 요약하면 그림1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오래된 부부 간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채 그러한 갈등을 거리두기로 표현해

온 40대 부부를 연구 대상으로 ‘이마고부부상담’을 적용한 단일 사례연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 중 ‘이마고부부상담’의 전 단계를 부부 내담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분석한 사례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점을 보완하고 이마고부부상담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는 기대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부가 자신들의 갈등상황을 거리두기로 대응하게 된 배경 등을 부부 간의 차이점과 발달단계로 살펴보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마고부부상담을 적용한 전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는 타 지역의 부부상담 전문가를 찾아 부부상담을 의뢰한 사례로, 상담초기부터 부부에게 안전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이마고부부상담’의 전 과정은 구조화된 대화방법을 사용하여 부부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므로 상담자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부부에게 안전감을 주는데 효과적인 기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을 통해 참여자 부부는 두 사람 다 발달 단계 중 ‘탐색 시기’에 상처를 가진 부부로 남편은 ‘거리 두는 자’, 아내는 ‘추적자’로 ‘이마고 짝’임을 자각하였고,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서 자신과 밀착되었던 어머니가 연상되어 무의식적으로 벗어나고 싶었던 속마음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다. 이는 ‘이마고 짝’이란 부부가 같은 발달 단계에서 심리적 상처 즉 트라우마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반대쪽의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을 찾는 과정(오제은, 2005)임이 확인되었다.

‘이마고부부상담’은 부부가 서로를 위한 상담자 역할을 하도록 상담자는 부부에게 대화법을 코칭한 후 부부가 대화법을 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촉진자가 되어 주는 것(Brown, 1999/2009)인데, 다른 부부상담기법과 달리 상담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부부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담의 전

과정이 부부에게 안전감을 제공한다. 특히 참여자 부부는 상담을 통해 제공된 ‘부모자녀대화법’을 통하여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서로에게 내보이는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정을 하고, 그에 의해 서로 상대의 근원적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부부상담 전문가는 부부의 발달단계를 파악함을 통해 각자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접근은 참여자 부부는 오래 된 부부갈등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서로 재연결 될 수 있도록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 부부는 ‘이마고부부상담’을 받으면서 부부상담 말기에 스스로 가정에서 이마고대화법을 시도하고 연습을 계속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부부의 선택으로 상담 회기를 종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이마고부부상담’의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마고대화법만을 적용한 이혼 위기부부 사례연구(변은주, 2017)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 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단일부부상담사례를 통한 사례연구로서 부부상담 전체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동료수련감독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진행하였으나, 한 명의 연구자가 상담자를 겸하여 연구와 상담을 진행한 관계로 객관성 확보의 한계점도 있다. 그러므로 이후의 부부상담 연구에서는 연구보조 인력을 추가하여 사례연구 분석 전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부부 각자 원가족에서 형성된 핵심적인 부정적 정서와 기대를 통찰하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습득, 부부 갈등을 오랜 기간 동안 거리두기로 표현해온 부부의 부부관계태도가 개선되는 변화를 깊이 있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발달단계에 따른 부부의 상

처를 살펴본 결과, 참여자 부부는 ‘탐색 시기’에 상처받은 부부로 분석되어 부부갈등이 거리두기로 표현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각 연령대별 부부들을 각기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마고부부상담’ 전 과정이 부부의 연령대별로 나타내는 경향성 등과 다양한 발달 단계에 따른 부부의 상처 및 갈등 양상의 연관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사례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이마고부부상담 관련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부부의 발달단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연구가 미비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더 많은 이마고부부상담 사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 대상 부부와 유사한 부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 내담자를 위한 효율적 부부상담의 접근 방법으로 ‘이마고부부상담’ 전 과정을 부부상담에 적용하는 것을 부부상담 임상 연구자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덕수 (2011). 부부치료에서 이마고부부관계치료의 타월성에 관한 문헌적 연구. **가족과 상담**, 1(2), 1-22.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 김유숙 (2015).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박경애 (1997). **인지-정서-행동치료**. 서울: 학지사.
- 박진수, 최광현 (2020).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인형 치료를 적용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97-124.
- 백운영 (2012). **이마고부부관계치료 경험을 통한 부부관계 기대감 변화 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복수 (2010).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를 통한 어린 시절 상처 인식의 변화와 배우자 이미지**

- 재 구성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은주 (2017). 이혼위기를 극복한 부부의 사례연구-이마고 부부관계치료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119-140.
- 송정아 (2004). **건강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이마고 부부치료 적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2005). 이마고 부부치료이론의 타당성 연구-배우자 선택과 이마고 형성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1), 261-274.
- 송정아 (2006). 이마고 부부치료 모델 내용의 타당성과 적용 효과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4), 87-99.
- 오제는 (2005). 커플 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 시절 상처'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 관계 치료와 내면 아이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1055-1070.
- 오제는 (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인간발달에 대한 세 가지 주요관점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7(3), 141-166.
- 이옥선 (2011). **크리스찬 기혼여성들의 이마고부부관계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화 (2015). **이마고 부부관계치료를 통한 이혼위기 부부의 심리적 치유과정.**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own, R.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이론과 실제[*Imago Relationship Therapy: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오제는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9년 출판).
- Francine, B., & Bruce, C. (2017). *Getting Back The Love We Had: Forty-Two Answers To Real Questions From Couples Who Feared They Were Losing Their Way* (Trilogy Book 1). California: the Pasadena Institute For Relationships.
- Gottman, J., & Silver, N. (2015). 가트맨의 부부 감정치유[*What Makes Love Last? How to Build Trust and Avoid Betrayal*]. (최성애 역, 조벽 감수). 서울: 을유문화사(원전은 2012년 출판).
- Hendrix, H., & Hunt, H. (2005). *Getting the love you want, couples workshop manual*. New York: Atria Books.
- Hendrix, H., & Hunt, H. (2008). *Basic Clinical Training for Imago imago relationship therapy: Training Guide*. New York: Imago Relationships International.
- Hendrix, H. (2014). *Introduction to Clinical training in imago relationship therapy-training manual text*. Lexington, KY: Imago Relationships International.
- Hendrix, H., & Hunt, H. (2019a). The Space-Between. Blog from <https://harvilleandhelen.com>.
- Hendrix, H., & Hunt, H. (2019b). Mismatched Marriages. Blog from <https://harvilleandhelen.com>.
- Hoseini, M., & Movahedi, A. (2016). Imago Therapy: A Strategy to Improve Couples Lovemaking.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7(4), 242-248.
- Luquet, W., & Hannah, Mo Therese. (2018). 부부관계 패러다임: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임상 사례 연구집[*Healing in the Relational Paradigm: The Imago Relationship Therapy Casebook*]. (오제는, 이현숙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8년 출판).
- Nedra, F., Wendy, P., & Orli, W. (2015). *From*

Despair to Repair: An Advanced Training Course in Imago Relationship Therapy. New York: Imago Relationships International.
Robert, W. F., & Joyce, C. (2015). 친밀감의 두려움[*FEAR OF INTIMACY*]. (김정옥 역). 서울: 눈 출판그룹(원전은 2000년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20년 04월 13일

수정원고접수일 : 2020년 05월 15일

게 재 확 정 일 : 2020년 05월 22일

A Case Study on IMAGO Couple's Counseling in the 40s Who Have Expressed Marital Conflict in Distance

Kwon, Hyung-Jin

Dr.Kwon's Pediatrics Clinic Office

This paper presents a case study on a couple in their forties, who expressed their marital conflicts through distancing, based on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Imago Couple Counseling, which aims to help couples reconnect and restore their relationships in the long run through the experiences of understanding and healing each other's old wounds. Time 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over the counseling sessions with Imago Couple Counseling (Imago Dialogue, Parent & Child Dialogue, and Behavior Change Request Dialogue) with the case study method applied. A total of ten sessions were given from May 19~September 29, 2018.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husband and wife found the causes behind their expression of marital conflicts through distancing of their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problems, desire and belief, and desire for physical contact and also their childhood wounds from their respective families of origin. Both the husband and wife had wounds inflicted on them at the exploration stage of development and realized that they made an Imago match with the husband as distant and the wife as tracer; secondly, the couple made a new discovery of their hidden desire that they were not able to express and realized that their desire could be fulfilled within their couple relations (Imago Dialogue); and finally, the couple learned to engage in a prepared couple conversation with a focus on their relationship and understood the causes of their marital conflicts, thus having experiences of being reconnected to each other based on an effective behavior change request from the othe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its significance and proposals.

Keyword : Marital Conflict, Couples in their 40s, Imago Couple's Counseling, A Case Study

「부부가족상담연구」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부가족상담연구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부부가족상담연구(Korean Journal of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tudies)'라 한다.

제3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간(발간 시기: 5월 30일, 10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게재원칙)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 전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 종류)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투고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게재할 모든 논문은 심사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투고자격) 본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가족상담 관련 분야 학과 교수 및 상담관련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 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투고자가 별쇄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선정된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10명 내외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이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실무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회의는 매년 2회로 3월과 8월에 개최한다.

제14조(심사위원단 구성) 논문의 심사를 위해 상임 심사위원단을 두며, 이는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박사 및 대학교수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의결을 통해 선정된다.

제16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송부한다.

제 17조(심사기준)

- ① 논문의 심사기준은 소정 양식(논문심사의견서)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심사결과는 심사기준에 의하여 아래 네 등급으로 구분된다.
 1.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완벽히 이행한 논문
 2. 수정후 게재가: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투고규정의 이행이 부족한 논문
 3.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논문 내용에 쟁점이 있는 논문.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4. 게재 불가: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
- ③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가를 얻은 후 학술지에 수록된다.

제18조(심사 방법 및 절차)

- ① (접수) 저자는 논문원고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대장에 투고논문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② (심사)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 ③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마친 후 논문심사 의견서에 "게재가/수정후 게재가/수정후 재심사/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 사항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④ (게재 여부 최종 판정)
 1. 수정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2. '수정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저자의 수정작업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친다. 저자와 심사위원 간에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하여 판정한다. 단, 충분한 수정기간을 두기 위하여 최소 2개월 이후 수정논문을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간의 심사불일치가 심할 경우 재심사에서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할 수 있다.
 3.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4. 게재 여부 판정에 대한 상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가
13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14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16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위원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수정 후 게재가"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 중 "게재불가"를 포함하는 논문에 한해, 재심사에서 두 번 연속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총 3회의 게재불가를 받은)에 대해서는 이미 두 편의 "게재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 (논문의 수정)

1. 저자는 논문심사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논문과 논문수정답변서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수정/보완된 논문의 수정내용 확인을 의뢰하며 재심사의견서와 수정/보완된 논문 1부, 저자의 논문수정답변서를 송부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재심사의견서에 게재가/게재불가 여부를 적어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4.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재심사) / 3차심사(재심사, 최종). 3차 심

사에서도 '게재가'로 판정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논문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논문작성요령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 ⑦ 예고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독촉서를 심사위원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9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제2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 부칙

- 1. (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근거) 본 위원회는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회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4조(위촉) 편집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 하에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선정)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술연구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 세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제6조(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체제,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편집회의

제7조(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임 시에 부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회의성립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 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서면 위임 시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된 의결권은 회의 의장이 가진다.
3. 전자 통신이나 전송으로 1항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경우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9조(심사 기준)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타당성
2. 연구 필요 및 목적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내용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5. 연구결과와 기여도
6. 투고규정 준수정도
7. 논문체제의 적합성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 위원회에서는 게재 희망 논문의 성격과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및 절차)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논문의 전공 영역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종합 판정을 내린다.
3. 심사결과는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평가는 <붙임 표 1>의 원칙에 의거한다.
4. 논문 심사 위원은 논문 내용에 관하여 수정,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게재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5.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는 <붙임 표2>의 원칙에 의거한다.
6.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논문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사후검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게재

제12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제13조(투고원고의 종류) 투고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제14조(학위논문투고) 학위논문 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예시) 연구는 저자명(연도)의 OO대학교 석(박)사학위논문 '제목'을(를) 요약(or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3.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투고 금지) 본 학회에 논문을 공식 투고하여 심사과정 중에 있거나, 심사완료되어 논문이 정식게재된 경우, 동일 논문 또는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해서는 안된다. 단, 정식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투고/게재 철회요청서를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게재할 수 있다.

제16조(게재제한) 한 호에 동일저자(주저자, 공동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허용하나, 게재되는 논문 2편 중 한 편에서 반드시 주저자여야 한다.

제17조(원고의 사용언어) 모든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논문원고의 경우 영어도 가능하다.

제18조(원고작성 및 제출) 원고는 반드시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원고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과 함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으로 제출한다.

제19조(학회지 발간 및 접수) 학회지는 5월(1호)과 10월(2호) 연 2회 발간하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또한 원고가 본 학회에 도착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기한 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접수를 무효로 한다.

제20조(원고의 내용) 제출된 논문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21조(저작권) 교신저자가 인쇄용 최종원고를 제출하는 것은 본 학회지에 논문의 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명시하지 않아도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귀속시키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23조(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투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제24조(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부부가족상담연구」 논문 심사 판정 체제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 결과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5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6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8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12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가
13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14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5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16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18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붙임2>

「부부가족상담연구」 투고자 이의 신청 처리 체제	
이의 신청 범위 및 방법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 1차 처리 방법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하며,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심사 결과 수정 실시.
이의 신청 최종 처리 방법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 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 신청이 합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 교체 후 재심사 의뢰.

「부부가족상담연구」 원고제출 및 작성요령

1. 부부가족상담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이다. 상세한 것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지편집위원회 게시판 안내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수시로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편집위원회로 논문원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논문 작성은 HWP(훈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논문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사항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 ① 1단(심사용)
 - ② 편집용지 : A4규격(210 × 297 mm) 세로용지
 - ③ 용지 여백 : 위쪽 35 mm, 아래쪽 35 mm, 좌측 30 mm, 우측 30 mm,
머리말 12 mm, 꼬리말 13 mm
용지 방향 좁게
 - ④ 문단모양 :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2,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⑤ 마침표 다음 : 한 칸 띄울 것(두 칸이 아님)
 - ⑥ 논문 제목 : 신명조 2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 ⑦ 저자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 위 20)
 - ⑧ 소속 : 신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문단 위 10)
 - ⑨ 초록 :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왼쪽 3, 오른쪽 3) (그 다음에 한 줄 띄우기, 10호)
 - ⑩ 주요어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그 다음에 두 줄 띄우기, 10호)
 - ⑪ 본문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문단 첫 줄은 두 칸 띄우고 시작)
 - ⑫ 본문 제목 1단계('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부록') : 신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문 제목 2단계 : 중고딕 11, 진하게, 양쪽 정렬
본문 제목 3단계 : 신명조 10, 보통모양, 양쪽 정렬
 - ⑬ 참고문헌 내용 : 신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각 문헌은 4칸 내어 쓰기로 구별(반드시 눈금자 조절)
 - ⑭ 영문초록 : 제목, 저자, 소속, 초록의 내용은 국문 지침과 동일함
 - ⑮ 부록 : 제목은 중고딕 10호, 내용은 신명조 9호
 - ⑯ 표제목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진하게
그림제목 : 중고딕 9호, 보통모양, 가운데 정렬, 진하게
 - ⑰ 각주, 저자 주, 표 및 그림의 주 : 신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정렬
주(중고딕 9호)라고 시작하고, 붙여서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어서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 ⑩ 표 작성의 줄긋기 : 표에 사용되는 줄은 명확성을 높여 줄 경우에만 사용하며 세로 줄은 사용하지 말고 가로 줄만 사용, 가장 바깥 가로선은 굵은 선(0.25mm)으로 쓰고 안쪽 가로선은 가는 선(0.12 mm)을 사용

⑪ 쪽수 표시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인용문, 그림, 표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정한 연구진실성 심사운영세칙에 위배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시에 게재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 및 저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며 논문의 모든 페이지는 1부터 연속적 숫자가 부여되도록 한다. 저자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사람에 한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학위논문투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학위논문의 경우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한다(신청서 및 논문제목 각주).
 - 교신저자는 저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상담관련등재학회지: 상담관련 논문 3편 이상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다.
7. 투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별도의 양식으로 논문에 표시할 수 있다.
8. 제출된 논문은 학회지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기로 한 논문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출 논문의 분량은 A4 용지 15매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경험적 연구논문의 형식은 서론(제목 없이), 방법, 결과, 논의 그리고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서론 앞부분에 제시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한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11.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한다. 동일저자에 의한 일련의 연구인 경우에 한해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논문전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연구 논문은 120-150 단어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은 APA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하고, 국문 및 영문 초록의 하단에 주요어 5개 이내로 표기한다.
1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거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로(graph의 경우 좌표 값의 명기) 제시한다.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 표의 제목은 표 위에 써 넣는다.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

림 1에서..., 표 1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다.

14.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각각 5글자씩 들어 쓰고, 줄간격은 150으로 한다.

나.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조성봉(2018)은

(예 2) 오제은(2016: 15)은..., (2016년도 문헌의 페이지 15)

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1)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제은, 2016: 18).

(예 2) 한 연구(오제은, 2009; Haville Handrix, 2004; Rick Brown, 2009)에 의하면...

라. 저자가 3인 이상 5인이하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시하되 첫 인용에는 모두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1) 천성문, 함경애와 조용재(2015)는...첫 인용

천성문 등(2009)은...반복 인용

15. 참고문헌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2)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대체로 APA(5ed.) 양식을 따른다.

(1) 단행본의 경우 : 책 이름은 진하게 한다.

어빈 알롬 (2005). **치료의 선물**. 서울: 시그마프레스.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수준과 부부관계 적응. **상담학연구**, 10(2), 1217-1228.

(3) 학위논문의 경우

오소정 (2016). **중년기 위기부부를 위한 이마고 커플모래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편저 속의 논문의 경우(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김이해 (2008). **현대 한국가족 문화와 부부 및 가족상담**. 김유리(편), 111-121.

(5)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오제은 (2009). 이마고 부부관계치료와 세계적 동향.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14-229.

(6) 신문기사의 경우

동아일보 (2001). 사이버 대학 1학기 수강생 10명 중 8명 꼴 재등록. 2001. 9. 23. 19면.

(7) 전자 매체, URL 등 인터넷 간행물의 표기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 <http://www.kacfc.or.kr>

- ① 인터넷에서 정보를 인출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혹은) 주소를 적은 후 인출한 날짜의 연월일을 구분하여 적고 “ ... 에서 인출”이라고 적어 문장을 끝낸다. 반드시, URL과 인출한 날짜를 기입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August 1). APA style for electronic resources. <http://www.apastyle.org/styleeleceref.html>에서 2001. 9. 5 인출.

- ② 인터넷의 비정기간행물 문서의 경우 날짜가 명기되지 않고 일반 기관에서 게시한 인터넷 문서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 문서가 들어간 홈페이지(혹은 첫 화면)로 연결될 수 있는 URL을 적어주고 작성 일자가 없음을 “작성일 불명”(영어는 no date를 나타내는 축약어 n.d.로 표기)이라고 명시한다. 문서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저작자명으로 간주하여 제시한다.

GVU's 8th WWW user survey.(n.d.).

http://www.cc.gatech.edu/gvu/user_surveys/survey-1997-10에서 2000. 8. 8 인출.

- ③ 기타(온라인 포럼, 토론 및 온라인 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 등)

장세정(2019. 2. 19). 무료 심리지원센터 전국 3곳뿐.

<http://mnews.joins.com/article/23381159?cloc=joongang> 중앙일보에서 2019. 4. 4. 인출.

3)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 사항

-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하며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McMillan, J.H.(2001).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instruction*(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 ② 편집된 책의 경우 아래의 방식을 따라 표기한다.

Wells, A.S.(1996). African-American students' view of school choice. In Fuller, B., Elmore, R., & Orfield, G.(Eds.). *Who chooses? Who loses? Culture, institutions, and the unequal effects of school cho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단,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편집하여 펴낸 책에서 한 논문을 참고하였을 때는 해당 논문의 쪽수도 함께 표기한다.

- ③ 번역서 혹은 편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뒤에 본문에서 인용한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번역서명을 적는다. 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를 이용하여 원

전의 제목을 표기하고 이어서 괄호로 묶어 역자명을 적고 “역 혹은 편역”으로 번역서임을 표시하고 마침표를 할 것. 그리고 번역서의 출판지와 출판사를 적고, 그 뒤에 원전의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 제시할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괄호 안에 원저자명을 적고 원전의 출판 연도와 번역서의 출판 연도를 빗금(/)으로 구분하여 나란히 표기할 것.

[예: Rogers, Carl. R. (1980/2007).].

Rogers, Carl. R. (2007). 칼 로저스의 사람-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80년 출판)

- ④ 정기간행물의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출판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시작 페이지-마지막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 중에 있는 경우 출판연도 대신 (in press)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 대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명칭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Diener, Marc J., & Monroe, Joel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therapeutic alliance in individual psychotherap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8(3), 237-248.

- ⑤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 기관 명 순으로 한다.

가)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Smith, J.E.(2008). Minority status and schooling.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Hobbes Research Center.

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조직이나 기관명이 저자명이 된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⑥ 미출판된 박사(석사)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Adelmann, P.K.(1989). *Emotional labor of employee well-be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USA.

- ⑦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가) 출판된 자료: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밝힐 것.

Deci, E.L., & Ryan, R.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rgration in personality. In Dienstbier, R.(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237-28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나) 미출간된 자료

Byun, S.Y., & Kim, K.K.(2007). Cultural activities and student achievement in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is of PISA 2000.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Baltimore, USA.

- ⑧ 신문기사: 게재면과 출판 연월일을 명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기간행물과 동일하다.

Mayer, C.E.(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p. E2, E3.

- ⑨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

National wage data.(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www.bls.gov/bls/blswage.htm#/national>

16. 영어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어논문의 작성 양식은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he 6th edition)에 따른다. 논문 분량은 6,000단어 이내(A4 15쪽 내외)로 하며, 초록은 120-150 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부부가족상담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의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부부가족상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부부가족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 즉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본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2장 연구윤리

제5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①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 ②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서의 할당 방법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9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10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 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4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6조(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조사방해·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18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표절)

- ①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 ②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③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2.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가 된다.

제21조(연구자료의 이중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외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인사 2인 이상과 편집위원 4인 이상을 위촉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학술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회는 확정된 학술윤리위원 명단을 본조사 착수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학술윤리위원회에 대해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5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6조(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윤리 검증

제27조(부정행위 제보) 제보자는 본회에 구술·서면 및 기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윤리적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가 밝혀진 경우에는 저자 및 저자의 소속연구기관에 고지한다.

제29조(예비조사의 주체, 기간 및 내용)

- ① 예비조사는 본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접수일이 부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30조(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를 심의·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해당연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본조사 실시를 결정한 예비조사결과는 피조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3.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의혹
 -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이유
 - 5. 기타 주요 관련 증거 자료

제3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3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자는 서면 혹은 구술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시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 1. 원칙적으로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제34조(변론의 권리 및 이의제기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변론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변론 및 이의를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과제 또는 논문명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피조사자의 역할
4. 관련 증거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요 변론내용과 이의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6조(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승인·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재한 재심요청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 ① 부정행위를 승인한 판정이 행해지고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적시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연구지원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8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3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 후 5년간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행해진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